

WONIKIN
SPRING 2018 VOL. 54

SPRING

자유를
통하여

WONIK GROUP MAGAZINE
2018 VOL. 54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고객은 우리에게 남다른 실력과 정성을 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전까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방식, 자유로운 관점을 익혀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원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을 넘어서도록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의미입니다.
Think Unconstrained(자유롭게 생각하라)!
스스로 변화하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는 원익인은
모든 이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생각,
열린 원익



04



08



18



WONIK
in
WONIK MAGAZINE
#54 SPRING 2018



16



34



66



82

원익그룹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안에인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원익큐엔씨 이민희 · 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이기복 · 원익큐브 윤세련 · 씨엠에스랩 박지현
위닉스 안희태 · 원익로보틱스 윤준호
원익엘앤디 최세현 ·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 기획조정실 이호철 서재원

원익 사보 2018년 봄호 원익인 통권 제 54호

발행일 2018년 4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퍼블페이지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04 **SPECIAL THEME**
열정을 나침반으로 자유를 향유하라



08 **BETTER TECH**
미·중 무역 전쟁, 굳건한 한국 반도체

14 **북 라운지**
호감 가는 말투의 심리학
원익홀딩스 김채빈 부사장
Book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18 **WONIK WORLD**
자유로운 열정, 그 뜨거움의 가운데 스페인

DEEP

26 **BOSS VS LEADER**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힘
원익엘앤디 박민철 팀장

34 **그웨잇 팀**
첫째도 둘째도 안전!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

40 **멘토링**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인연
원익홀딩스 이상훈 과장 & 구찬희 사원

46 **WONIK HERO**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신감으로
테라세미콘 임현옥 부장 외 3명

50 **밥 한 번 먹어요**
생각을 나누며 함께한 봄날의 기억

56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씨엠에스랩 이재경 과장 & 변지영 사원

58 **THE WAY**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

58 **원익 덕후**
황홀경의 심해에 빠지다~ 스쿠버다이빙
원익아이피에스 맹채연 대리 &
원익머트리얼즈 권오성 사원

66 **선물 같은 하루**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친밀한 자유를 느끼다
하늘물빛정원의 행복한 힐링 체험

WIDE

76 **원익은 지금 ❶ 원익**
이노젱터 피부미용치료의 새로운 바람
KIMES 2018 참가

84 **원익은 지금 ❷ 원익아이피에스**
행복에 한 발 다가서는 시간

88 **원익은 지금 ❸ 씨엠에스랩**
세상 가장 소중한 행복을 맞을 시간



92 **원익은 지금 ❹ 원익머트리얼즈**
직원의 행복이 기업의 행복.
Company Meeting & Movie Day



96 **명작예찬**
도자기의 아찔한 곡예

98 **행복일터**
자유로운 열정, 꿈을 실현하는 원익

101 **NEWS FOCUS**

120 **THANKS FOR YOU**

121 **EDITOR'S LETTER**



열정을 나침반으로

자유를 향유하라



Coco Chanel

‘노동자의 값싼 바지? 두고 봐, 저 바지가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될 테니까!’
모두들 비웃었다. 더욱이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작은 옷가게의
젊은 주인 아가씨가 뱉은 말이라니, 그저 우습고 엉뚱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란 듯이 ‘엉뚱한 발상’을 현실로 완성하며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의 디자이너이자 CEO로 성장한 가브리엘 샤넬.
그가 말한다. 나는 어떤 일이든 어중간하게 하지 않는다. 즐기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않는다.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창조하라, 순간순간을 사랑하라고

자유의 전제조건, 자신의 재능을 쉽 없이 키워나갈 것

샤넬은 1883년 프랑스 남서부의 소뮈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샤넬은, 말괄량이로 성장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보다 열정을 다했다. 보육원에서 배운 바느질이 그러했다.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바느질은 훗날 세계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또한 당대의 재력가였던 발상(Étienne Balsan)을 만나 모자 가게를 열게 됐는데, 샤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시대의 흐름을 관찰하며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1913년 영국인 사업가 카펠(Arthur Capel)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휴양지인 도빌(Deauville)에 자그마한 모자와 함께 단순한 스포츠웨어를 취급하는 상점을 열게 됐다.

“Nature gives you the face you have at twenty; it is up to you to merit the face you have at fifty. 20대에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란 ‘마음껏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재능’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충분한 재능이 뒷받침되었을 때,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느질은 당시에 흔한 기술이었지만, 샤넬은 그 기술 하나를 끊임없이 갈고 닦았기에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자유로운 시선과 발상이 도전을, 성공을 불러온다.

1913년 처음엔 구멍가게나 다름없었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파리 전역에서 상점을 찾아올 만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자유로운 발상에서 시작됐다. 남성 속옷에나 쓰였던, 값싼 편물의 일종인 ‘저지(Jersey)’를 이용해 여성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 더욱이 여성의 활동이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웨터나 세일러 블라우스(sailor blouse)와 같은 편안한 의상을 디자인해 선보이기 시작했다. 참고로, 세일러 블라우스는 어부들의 작업에서 착안해 디자인되었으며, 남성 노동자들의 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성의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패치 포켓을 활용했다. 나아가, 샤넬은 1916년 비아리츠(Biarritz)에 ‘메종 드 쿠티르(양장점, maison de couture)’를 열어 정식으로 첫 의상 컬렉션을 발표했으며, 1918년 쿠티리에르(couturiere, 여자디자이너)로 등록하고 파리의 캄봉(Cambon) 거리에 매장을 열었다.

“In order to be irreplaceable one must always be different.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늘 남달라야 한다.”

샤넬의 자유로운 발상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보육원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은 좌절과 한계가 아닌, 관습을 깨고 시대적 변화에 발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샤넬의 유연한 사고는 실행으로 옮겨지며, 도전을 통해 성공의 변역에 올라서게 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다

샤넬이 선보인 의상들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 일색이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강조된 당시의 패션계에 샤넬의 의상들은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결국 붐을 불러오는 데 성공했다. 물론 샤넬은 변화를 이끈 장본인은 아니었다.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발 빠르게 캐치해서 그에 걸맞은 디자인을 선보였던 것뿐이다. 당시는 여성의 학력 향상 및 직업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스포츠와 각종 문화사업에도 여성의 활약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샤넬은 여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읽어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소매, 걸음이 편안한 짧은 이브닝웨어 등을 선보였으며, 나아가 여성 스포츠웨어도 관심을 가지며 단순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을 쏟아냈다. 모자 상점을 열고,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샤넬은 인기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며, 192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26년 발표한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샤넬 디자인의 단순미와 기능성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단순한 디자인 탓에 빠르게 복제되어 미국 등지로 퍼져나갔다. 당시 샤넬은 화를 내기보다 샤넬 디자인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복제판이 성행할수록 <샤넬>은 오리지널 브랜드라는 평가와 높은 희소성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Fashion is made to become unfashionable. 유행은 유행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

샤넬의 성공은 자유로운 발상을 넘어, 현재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자유롭게 읽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관습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샤넬이 그러했듯 틀을 깨고 넓고 자유로운 시야로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볼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라면 샤넬의 성공은 ‘그녀’가 아닌 ‘우리’의 성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유란 ‘소통’으로 시작해 ‘행복’으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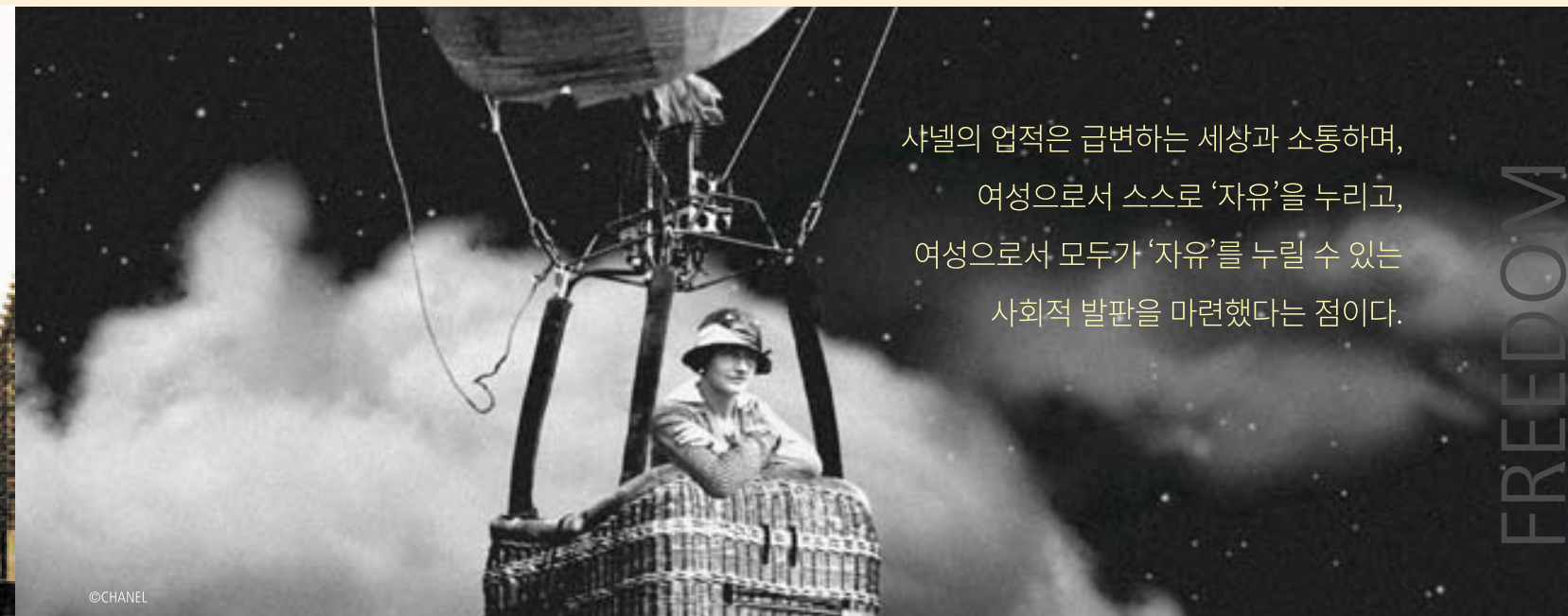
갈고뒹은 재능과 시대를 관철하는 눈, 남다른 발상만으로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샤넬의 특별한 디자인을 수많은 인

사와의 교류를 통해 탄생했으며, 소통을 통해 시대를 읽고 한발 앞선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었다. 초창기인 1910년에는 발상(Étienne Balsan)의 도움으로 가게를 열고, 1913년에는 영국인 사업가 카펠(Arthur Capel)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영국인 웨스트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과 그 주변 친구들이 착용했던 스포츠웨어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또 1920년대와 1930년대 연출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대 의상과 할리우드 영화 의상 등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심지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기도 했다. 소통에서 시작된 끊임없는 성장은 패션을 넘어 1921년 샤넬 N°5(No. 5) 향수 사업과 1924년 코스튬 주얼리(커스텀 주얼리, Costume jewelry) 사업, 195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체인 손잡이가 달린 핸드백과 앞부분을 검은 가죽으로 대어 오염을 방지한 슬링 백(sling backs) 등 다양한 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브랜드의 입지를 굳혔다.

“Fashion is not something that exists in dresses only. Fashion is in the sky, in the street, fashion has to do with ideas, the way we live, what is happening. 패션은 드레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패션은 하늘과 길거리에도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샤넬은 ‘바느질’이란 혼한 기술을 재능으로 키워낸 뒤, 평생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보냈다. 더욱이 모던한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삶에 행복을 안겨주었다.

샤넬이 보여준 자유와 소통, 그리고 행복은 창익과 도전, 그리고 혁신으로 이어지며 성공한 리더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원익인의 비전을 실천하듯이 말이다. 그것은 또한 자유로운 발상과 실행력을 갖춘 우리, 원익인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찬 이유다. **W**



미·중 무역 전쟁, 굳건한 한국 반도체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기술이 셀 수 없을만큼 많다. 인공지능(AI)이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 5G(5세대) 같은 단어들은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우리 실생활은 어떤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로봇이 옛날보다 더 자주 곳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성 인식 로봇에서부터 길 안내 로봇까지. 이러한 로봇들은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단연 반도체일 것이다.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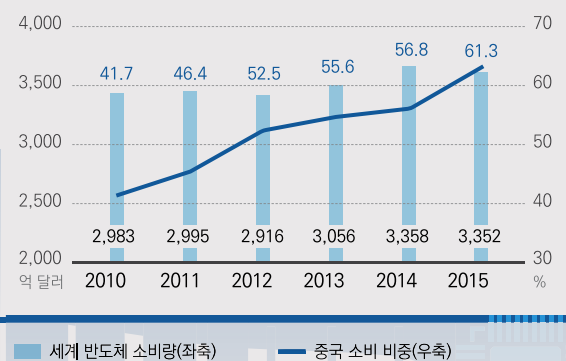
글. 손수란 기자 The SEMICON Magazine

자동화 산업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 전문 잡지 The SEMICON Magazine을 진행하며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Korea와 SEDEX의 미디어 파트너로, 기업과 기업의 사고 역활에 충실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미국발 무역 전쟁 엄포에 ‘대공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 협상 결과에 따라 각 부처별 대응 전략이 세워졌고 기업 내에서도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반도체 구매를 줄이고 미국 반도체 구매를 확대한다는 보도가 있는 직후 국내 언론 및 증권사들은 중국발 악재라며 들썩였지만, 반도체기업들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수급에는 변화가 없고, 공급 부족인 현 상황에서의 영향은 더욱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판단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며 자국 내 미국과 합작 또는 라이선스 형태로 공장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인데, 생산이 늘어 공급과잉이 되면 한국산의 판로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및 중국의 반도체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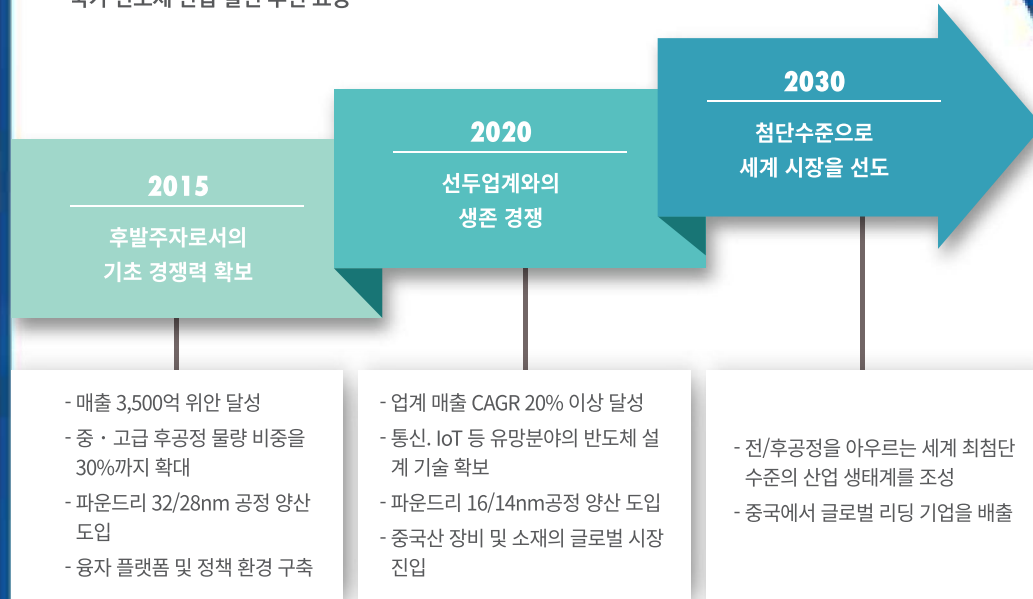


중국 ‘반도체 굴기’의 진행 현황

글로벌 IT기기 업체들의 주요 생산 기지인 중국은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반도체 소비량 성장률은 연평균 8.2% 수준을 기록하며 동기간 세계 반도체 소비량 성장률인 2.9%를 훨씬 웃돌았다. 최근 자국의 IT 스마트폰 가전기기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향후 중국에서 IT기기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흡한 기술력, 자금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의 부재 등 여러 이유로 자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이는 반도체 분야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률을 높여 내수를 충족시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반도체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된 것도 ‘반도체 굴기’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무역적자,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 등으로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본 요강에서는 2015년, 2020년, 2030년까지 기술개발, 제품 양산 등의 단계별 세부 목표, 1,200억 위안 규모의 기금 설립 및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업계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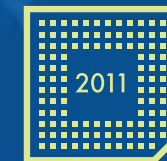
자료: 국제산업협력실(2014)

본 요강을 통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 추진 방향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수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설계 제조 후공정 장비 분야 등 Value Chain 전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외 선진 기업과의 제휴, M&A 등을 통한 기술력 제고이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5년 7월 중국의 국가발전개발 위원회는 신형 6대 산업 중 고성능 반도체가 포함된 중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본 투자계획은 5년 주기로 집중 육성 산업을 새롭게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2015년 판에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처음으로 중점 산업으로 선정됐다. 이 계획은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의 고도화, 장비 및 소재 분야의 고급화 등 전 분야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세계 반도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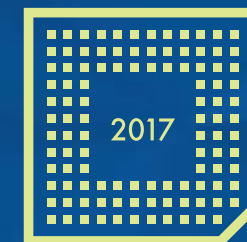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2.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늘리고 제조 기술력을 제고하여 자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국 기업에는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에는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한 현지 공장 유치로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BOE(베이징시 소유 펀드가 지분율 11.56%로 최대 주주)가 베이징시의 천문학적인 지원 하에 LCD Panel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이면서, 이에 따른 학습효과로 중국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15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서 당시 13.5% 안팎이었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1600억 달러(약 172조 67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초대형 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새로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한 이유는 인공지능(AI), 5G(5세대) 통신용 반도체 같은 차세대 분야를 주도하기 위해서로 판단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5G 통신망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자급화하면서 점유율 확대와 기술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연간 반도체 수입액

(단위: 달러)



1,710억



2,595억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은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기반으로 각종 디지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50대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중 중국 업체가 이미 11곳이나 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SMIC가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랐을 상황이다. 중국 1위 반도체 설계 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은 올해부터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함께 스마트폰·PC 등에 사용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한다고 밝혔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 회사인 미국 애플도 2020년부터 아이폰용 반도체를 칭화유니그룹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칭화유니그룹은 올 하반기 중국 우한의 3차원 낸드플래시 공장을 완공하고 반도체 양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중국은 생산라인 확충과 동시에 팹리스(설계), 파운드리(제조), 장비 분야 강화를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개선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중국반도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후공정 처리 분야가 50.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8.3%로 하락했고 팹리스, 파운드리 분야의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높은 창의성 및 기술력이 필요한 팹리스 분야의 비중이 동기간 27.2%에서 36.7%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에는 중국 내 신규 공장도 늘어나며 파운드리(제조) 분야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팹리스-제조-후공정간 적절한 균형을 갖추게 된다면 특정 취약분야에서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SEMI가 발표한 세계 팹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팹 장비 투자는 2018년에 57%, 2019년에 60%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속한 투자 증가로 2019년에 이르러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최고의 팹 투자 지역으로 올라서리라는 것이 중국의 예상이다.

2018년~2019년에 중국의 팹 장비 투자가 높게 측정된 이유는 2017년에 착공한 26개의 팹이 건설되어 올해나 내년에 장비를 갖춘 시기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현재는 비(非) 중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팹 장비 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9년 중국 내 중국계 기업의 투자 비율은 2017년 33%에서 2019년 45%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2595억 달러(약 280조4600억 원)의 반도체를 수입한 중국이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업체 영향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이 중국의 성장과 자급화 전략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發 무역 전쟁 업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린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42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6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 중 78%(2015년 기준)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에서 나온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에 393억 5,000만 달러어치 수출된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한국 등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 수익을 남긴다.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한다. 미·중이 통상전쟁을 벌이면 양국 사이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2월 펴낸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 중간재 수요 감소에 의해 한국의 총수출은 0.25%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재 수출이 전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중국 수출 물량 중 1,120억 달러가 감소한다. 한 해 전체 수출액 5,739억 달러(2017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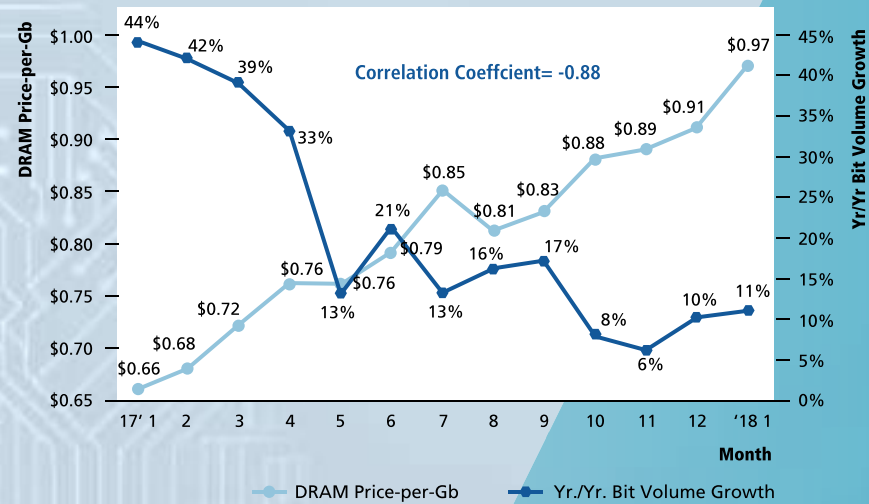
그러나 시장의 우려와 달리 국내 반도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DRAM이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NAND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 중국이 국내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비중을 줄이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호황, 거침없는 상승세

세계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올해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공급 초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다. IC인사이드는 올해 매출 기준 D램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올 초 예상했던 13%에서 37%로 올렸다. 마찬가지로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10%에서 17%로 높였다. 이에 따라 세계 집적회로(IC) 시장 전망치도 8%에서 15%로 애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D램 시장의 성장이 전체 IC 시장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이를 것이라고 IC인사이드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애초 예상과 달리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애초 예상보다 가격 상승세가 더 오래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IC인사이드는 작년 81%나 가격이 급등했던 D램 가격이 올해도 36%가량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작년 45%가량 상승했던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국내외 반도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며, DRAM 미세공정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공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Ware)의 사용빈도가 증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Quartz Ware란 주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Diffusion(확산) 공정, Etching(식각) 공정에서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고, 이송 시에도 충격 및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Quartz 제조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필요하고, 원가경쟁력을 보유해야 하며, 대규모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가동률 상승,
미세공정화 수혜



기가비트당 D램 가격과 비트증가를 추이(2017.1~2018.1)

자료: WSTS, IC Insights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4Gb PC용 범용제품의 고정거래가격은 2월 말 기준 평균 3.81달러로 작년 말보다 6.13% 증가했다. 메모리카드용 128Gb 낸드플래시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개월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시장조사업체들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가트너는 올해 초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증가율을 기준 4%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D램 공급률이 작년 97.1%에서 올해 96.1%에 머물면서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에 이어 올해도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미세 공정 적용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장조사업체들은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D램 비트그로스(용량 기준 생산량 증가율)가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D램 생산공정이 20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서 미세공정 난이도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D램 제조에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적용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도 기존 공정으로 10나노대 D램 생산 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D램에서 시장점유율 70%, 낸드플래시에서 40% 후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도 작년만큼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이 집계한 증권사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 평균치는 삼성전자가 14조 5,715억 원, SK하이닉스가 4조 3,7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2%, 77.1% 늘어난 수치다. **W**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투의 심리학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과 소통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입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말투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슷한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기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투를 조금만 바꿔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책에서는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주고,

전문적인 심리학 법칙을 알기 쉽게 풀어서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 응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W**

글. 원익홀딩스 김채빈 부사장

말하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원익홀딩스 김채빈 부사장의 생활 응용편

——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

나이토 요시히토 저 / 유노북스 출판



저자소개

나이토 요시히토

나이토 요시히토(?藤誼人)는 심리학자. 일본 릿쇼 대학교 객원교수이자 유한회사 양길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사회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회심리학을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개인들이 조직 속에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맺어 가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지은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 당신이 사랑받는 다섯 가지 이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아들러 심리학의 말》, 《왜 마쓰코 디렉스는 마음대로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까?》,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남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여자》 등이 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Yes’를 이끌어 낼까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사회성의 법칙](#)

‘1만 원’이 필요해도 ‘1천 원’부터 부탁하라 [이븐 어 페니 테크닉](#)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오찬의 법칙](#)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 [DTAG 법칙](#)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축적의 법칙](#)

정보의 가치를 넘지시 끌어올려라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라벨 효과](#)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멋진 대사가 멋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멀의 법칙](#)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복동과 햇볕의 법칙](#)

그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미소 효과](#)

은근슬쩍 ‘숫자’를 주입하라 [넘버 효과](#)

애인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공포심을 조장하라 [공포 작전](#)

‘나’는 숨기고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의 법칙](#)

‘무엇을 말할까’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후광 효과](#)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No’라고 하지 않을까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제삼자의 입을 빌려라 [주워듣기 효과](#)

웃는 얼굴로 행복감을 감염시켜라 [웃는 얼굴의 감염 효과](#)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칭찬의 함정 효과](#)

관심을 공유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공유의 법칙](#)

두 번까지는 OK, 세 번 이상은 NO [샌드위치법](#)

그럴 듯한 ‘배경 에피소드’가 철통 경계를 무너뜨린다 [에피소드 설득](#)

사람의 마음속 ‘청개구리 심리’를 이해하라 [아이러니 효과](#)

최후 수단은 ‘눈물 작전’밖에 없다 [인더독 효과](#)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금부터라도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 보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세나 가벤의 실험을 보자.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만 물었더니 10퍼센트만 동의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그 비율이 무려 50퍼센트까지 뛰어올랐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성의 법칙’의 효과다. 같은 이야기라도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덧붙이면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는 ‘사소한 부탁’부터 하면 좋다. 단순히 “일 좀 도와줄래?”라고 말하지 말고 “10분만 도와줄래?”라고 부탁하면 1시간을 도와달라고 할 때보다 부담이 가벼워져서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번 응하면 10분이 지났다고 바로 가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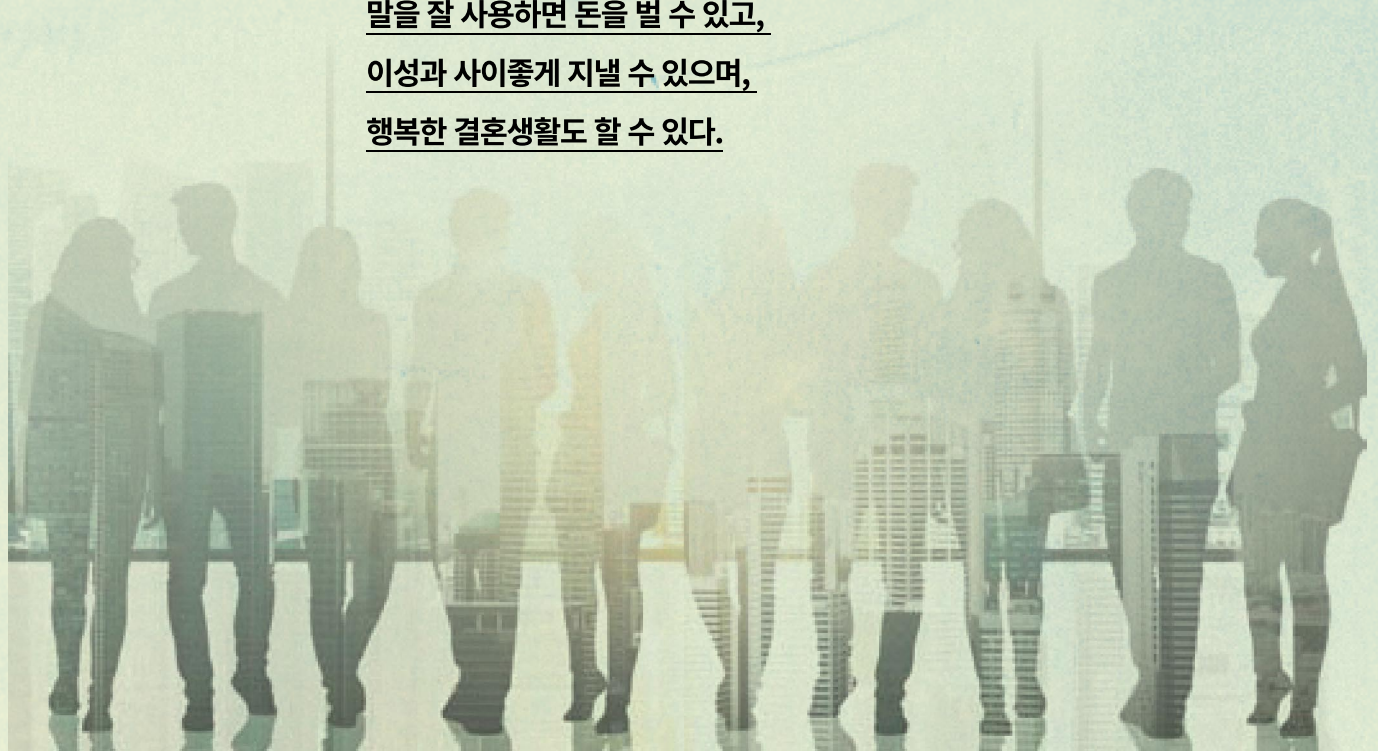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실험을 통해 이와 같은 심리 현상을 발견하고 ‘이븐 어 페니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처럼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도 할 수 있다.



스페인만큼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여행할수록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뜨거운 태양, 종전연색으로 빛나는 도시들의 아름다움, 그 속에서 씨에스타(낮잠)를 즐기며 여유를 누리는 스페인의 일상이다. 한편으로는 벨라스케스, 고야 등 스페인 미술의 거장들과 피카소, 달리, 가우디와 같은 20세기 예술가의 작품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은 스페인 여행만의 큰 기쁨이다. 대항해시대에 세계 제국이라 불렸다가 한때 2등 국가로 전락하기도 했던 스페인의 어제를 생각하며, 각색 각양의 문화와 예술을 느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자유로운 열정, 그 뜨거움의 가운데 스페인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 구엘 공원의 독특한 풍경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이름- 여기, 스페인

스페인이 우리에게 가까워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여객기 노선이 열린 것이 1994년이니까 약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을 통해 알음알음 유럽을 만날 수 있지만, 스페인은 이들 나라와는 다른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유럽,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스페인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보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다. 일찍부터 로마제국의 일원이 되기도 했고, 711년에 침공한 무어인(아랍계 이슬람교도)의 통치를 받다가 1492년 가톨릭 세력이 영토를 회복하

기까지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때문에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이 스페인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게 되어 오늘날 카스티야로 대표되는 마드리드, 카탈루냐로 불리는 바르셀로나, 안달루시아 지역의 그라나다·세비야·말라가 등 각기 다른 지역색에 고루 반영됐다.

스페인 동부에 위치한 바르셀로나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생긴 이래로 스페인 여행이 한결 편해졌다. 보통 스페인 여행 코스는 바르셀로나-발렌시아-마드리드-세비야-말라가-그라나다로 이어지는 틀에서 정하는데, 이유는 이

동 동선이 겹치지 않고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페인의 넓은 지역을 훑어보기에 AVE(Alta Velocidad Española; 스페인 공영 철도기업 렌페(RENFE)가 운영하는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는 방법만큼 제격인 것은 없다. 창밖을 보고 있노라면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산봉우리마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풍차들이 마치 몽환적인 시편의 그림자처럼 창문에 어리어 한바탕 춤을 추다 금세 자취를 감추기를 반복한다. 돈키호테가 현대인의 이런 여행 방법을 알았다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무어인들이 세상에 남긴 최고의 걸작,
알람브라

스페인을 정복한 무어족에게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은 최후 거점이었다. 8~15세기경 이슬람교도들의 통치 아래 스페인은 가장 교양 있고 세련된 유럽의 중심지였다. 무어인들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건축 형식을 스페인에 도입해 푸르른 정원과 그늘지고 시원한 중정을 만들었다. 알람브라 궁전은 무어인 문화의 세련미와 품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알람브라 궁전은 매혹적인 방들과 구석구석 아름답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주랑, 중정형 정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탄생한 유럽 고딕에 뒤지지 않는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의 증거물이다.



1



2

내가 만나본 스페인, 스페인 문화

서지혜 대리
(주)원의 경영지원실

봄호 원익월드의
추천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가장 우선 순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가 완공되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스페인을 가게 된 것이 여행을 결심한 큰 계기이기도 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의 기부금만으로 지어지고 있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벽돌 1개만이라도 보태게 된다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시내보다 교외 위주로 여행했는데 너무 멋졌어요. 중세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느낌이었어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근교 위주로 갔는데 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다.



안달루시아 지방을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는 최근 <윤식당 2>이 촬영하기도 한 곳인데 너무 예쁘고 이비스 섬도 유명하죠. 구석구석 가 볼 곳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1. 파에야(Paella)는 고기와 해산물, 채소와 쌀을 주재료로 한 스페인의 전통 쌀요리다. 20세기에 이르러 파에야의 명성은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해외로 퍼져 나갔다.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발렌시아 지방의 요리로 인식하고 있다.
2. 몬세라트산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습바실리카 양식의 화려한 실내가 인상적이다.

여행을 위한 로망으로 넘치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도시 특유의 열정적인 분위기,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수많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다. 특히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의 건축물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구엘공원(Park Güell), 카사 바트요(Casa Batlló),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는 꼭 둘러봐야 할 명소다.

박물관의 도시인 마드리드는 입체적이면서도 다원화된 변모를 잘 보여 준다. 이 도시에는 오래된 옛 미술관과 함께 전위적이고 기이한 건물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아트 워크(Art Walk)를 거닐고, 세계적인 프라도 미술관이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포함한 수많은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투우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벤타스 투우장(Las Ventas Bullring)도 독특한 감흥을 준다.

세비야는 1519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첫 세계일주 항해를 출발한 곳으로, 세계 여행자라면 눈여겨 볼만하다. 스페인 남부 문화를 상징하는 플라멩코 춤,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선 레스토랑과 클럽 등 스페니쉬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느낄 수 있

4. 아이들을 위한 동화 속 공간, 가우디의 까사 바트요. 집주인이었던 바트요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 부탁하여 당시 유행했던 동화의 이야기를 담아 이곳을 만들었다.

5. 말린 양고기가 매달려 있는 양고기 레스토랑

6. 투우 장면이 그려져 있는 스페인 전통 물통



4



5



6

가우디의 영혼과 만나는 예술의 성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의 엄청난 규모와 환상적인 이미지는 1884년부터 1926년에 사망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감독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비전을 보여준다. 가우디가 선보인 독특한 건축양식은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됐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종탑들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로 여러 구조물들을 둘러싸고 솟아오르며, 그 꼭대기에 있는 여러 색의 자기로 만든 ‘방울 장식’들은 열두 사도를 상징한다. 이 건축물은 아직까지 건설 중이지만(가우디 서거 100주년에 맞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대한 포부와 규모에서 중세 유럽의 성당들에 뒤지지 않는다. 정치적·사회적 변동기를 지나면서도 공사가 계속된 것은 카탈루냐 문화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해안가를 따라 레스토랑, 바, 클럽 등이 늘어선 다채로운 베티스 거리(Calle Betis)를 둘러보세요. 고딕양식의 성당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비야 대성당과 웅장하고 독특한 목조 구조물 메트로폴 파라솔도 중요한 명소다. 그라나다와 함께 안달루시아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말라가는 지중해 도시의 천혜의 아름다움, 유구한 역사,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진 도시다. 무어인들의 알카사바(Alcazaba) 요새, 로마 극장(El Teatro Romano)을 비롯해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가 태어난 곳인 만큼 피카소 박물관을 관람

할 수 있는 장소다. 말라가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스페인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적격이다. 한때 유럽이 세계로 진출하는 대항해 시대를 맞아 교류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던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외지인을 더 따뜻하게 맞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일까, 여느 유럽 도시들과는 다르게 여행객들이 혹할 만한 점들이 많은 것이 스페인 도시들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물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왔던 주머니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TAX 비

용도 무시하지 못할뿐더러 유럽 국가 중에는 안전한 편이라지만 테러와 절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어쩌면 많은 나라들의 도시를 보아오며 스페인에 온 사람이라면 무심코 몇몇 명소만 훑어보듯 지나치겠지만, 사실 스페인 본래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 느린 걸음으로 마치 생활하듯 느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느 여행이 그러하듯, 스페인을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여행을 하고 싶다면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예술품이 아니라 주말 동네 아침 시장 산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스페인 사람들은 오늘 어디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있을까. **W**



23

FREEDOM

DEEP



BOSS VS LEADER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힘
원익엘앤디 박민철 팀장

그웨잇 팀

첫째도 둘째도 안전!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

멘토링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인연

원익홀딩스 이상훈 과장 & 구찬희 사원

WONIK HERO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신감으로

테라세미콘 임현옥 부장 외 3명

밥 한 번 먹어요

생각을 나누며 함께한 봄날의 기억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씨엠에스랩 이재경 과장 & 변지영 사원

THE WAY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

원익 덕후

황홀경의 심해에 빠지다~ 스쿠버다이빙

원익아이피에스 맹채연 대리 & 원익머트리얼즈 권오성 사원

선물 같은 하루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친밀한 자유를 느끼다

하늘물빛정원의 행복한 힐링 체험

훌륭한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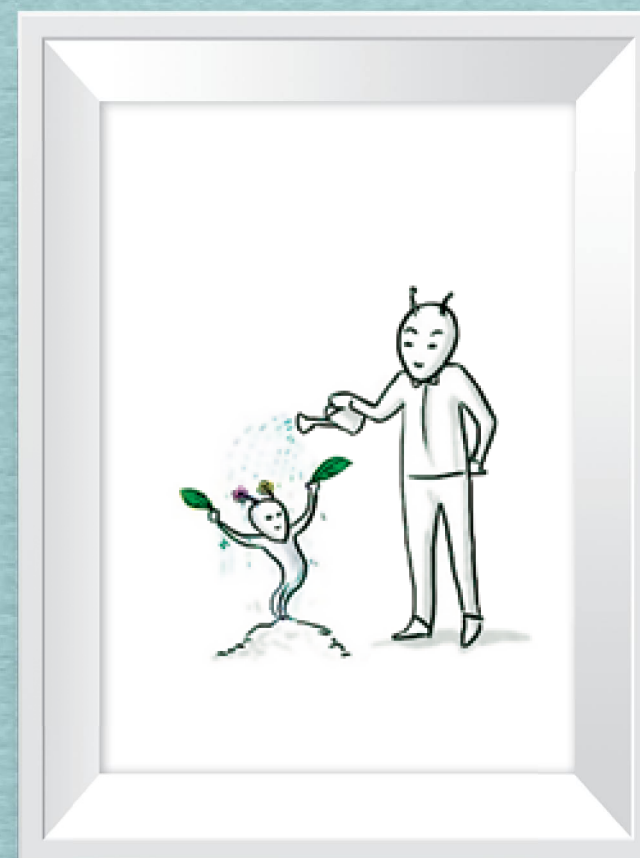
내가 꿈꾸던 리더를 만났습니까?
현실 속 나는 보스입니까? 리더 입니까?



Boss

보스는 부하 직원이 크는 걸
용납 못한다.

V S



Leader

리더는 싹이 클 수 있게
도와준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흰 눈이 덮인 별판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서산대사

Boss vs Leader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힘

원익엘앤디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고객센터팀
/ 팀장 박민철

No.2 Leader

리더라면 출중한 실력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선봉장의 캐릭터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어져야 한다. 리더는 능력을 타고난 높은 지위의 영웅만이 아니다. 누가 리더이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이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은 리더인 것!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위기에 빛을 발하는 리더의 능력

메이플비지골프앤리조트에서 입사 8년 차가 된 김선미 대리. 그의 담당 업무는 골프장 프런트 파트다. 오늘은 모처럼 새벽 근무를 하고, 이제 곧 교대할 직원이 올 시간이다. 항상 그렇듯 클럽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박민철 팀장이 누구 보다 먼저 출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근래에 D라인 몸매를 확실하게 관리해보겠다는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데, 다름 아닌 전기자전거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 대리님!”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잠시나마 피로를 잊게 해준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팀장님!” 전날 고객서비스팀 몇몇 후배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는 박 팀장에게, 김 대리가 작심한 듯 한마디를 던진다. “살은 좀 빠졌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박 팀장은 허허 웃으며 대답한다. “전기모드를 끄고 타야 할까 봐요. 땀은 나는데 영 효과가 없네. 하하.”

덕살 좋은 웃음에 김 대리는 빙긋 웃는다. “아까 제가 테이블 정돈과 바닥 밀결레질을 했으니 옷만 갈아입으시면 돼요. 식음 파트에서 거들어줄 일 없나 하고 찾지 마시고요.” 속마음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박 팀장은 멋쩍다는 듯 탈의실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보며 김 대리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다른 직원들이 해도 되는 일을 저리 찾아서 한단 말이야. 이제는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 옛 기억에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오는 김 대리. 이제는 오래되어 잊을 만도 됐지만, 새벽 근무를 할 때면 으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고객들이 계속해서 입장하던 시간,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위급함을 느끼고 일순간 멘탈 붕괴에 빠졌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고,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객들은 계속 이어졌다. 하늘은 노랑고 이제는 어찌해볼 수 없겠다 싶을 때, 마치 구원처럼 박 팀장이 클럽하우스 로비에 나타났다. 정신을 놓았던 듯, 그다음 기억은 병원에서였다. 알고 보니 단 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식중독이었다, 이때 옆에서 걱정스레 챙겨주셨던 사람, 박 팀장이었다.

이날 이후 김 대리는 박 팀장을 종종 “제 생명의 은인이시군요”라며 웃음과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낸다. 평소에 일찍 출근하는 박 팀장이 그날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찔하다. 생각해보면 위기일발의 순간이면 박 팀장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놓고 사라지곤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반창고 사건이 그랬다.

골프장에 오기 전 어디선가 손가락을 다친 고객이 사우나를 즐기다가 상처가 부어올라 프런트에 찾아왔다. 반창고가 있느냐는 말에 서랍 속을 찾던 직원은 급한 마음에 반창고를 발견하지 못했고, 고객은 상처의 쓰라림을 참기 어려웠는지 항의를 하기 이르렀다.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분위기를, 우연히 지나던 박 팀장이 보고는 황급히 달려 나왔다. 일단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묻고는 프런트 직원과 식음 파트 직원까지 반창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고객의 손가락을 보며 예의 근심스러운 말씨로 차분차분 다독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박 팀장의 걱정 어린 표정과 조심스러운 말투에 적이 마음이 누그러들었는지, 고객은 이윽고 “고객 응대는 이렇게 해야지”하며 객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수 분의 시간이 흘러 서랍 속 꼼꼼한 곳에서 찾아낸 반창고를 들고 그가 직접 고객의 객실로 찾아갔다.

직원들은 이 사건을 회자하며 말한다. “도대체 박 팀장님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런 속에서 몇몇 직원들은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다.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정통해야만 하는 거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고객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지.”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진짜 리더

박민철 팀장의 공식적인 업무는 프런트 파트, 식음 파트, 조리 파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 그리고 고객서비스 만족 부분도 그의 담당 업무다. 비공식적으로 팀원들의 머슴 역할도 맡고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그다. 박 팀장이 입사한 것은 2012년 8월로, 김선미 대리보다 1년 반이나 늦다. 그래서 인지 그는 종종 선배 대접을 해주겠다는 말투로 대하곤 한다. 물론 즐거운 직장생활 중에 있는 장난 중 하나다. 오늘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날. 대부분의 교육은 고참 직



원이 맡지만, 가끔 박 팀장도 교육 장소로 와서 자신이 겪었던 서비스 사례를 위주로 경험담과 요령을 알려준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어떻게 하면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관한 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리더는 후배에게 방향성을 일깨워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경청하던 신입 직원 한 사람이 박 팀장에게 묻는다. “팀장님은 스스로 훌륭한 리더를 만나보셨나요?” 돌연한 질문에 흐뭇한 웃음을 짓는 박 팀장.

리조트업계에 입사해 막 호텔 프런트에 배치를 받던 때, 초창기라 설렘 반 긴장 반 근무하고 있는데, 호텔 총지배인이 그 옆에 다가와 서는 것이다. 그리고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저분은 어떤 고객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된 그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체크인한 고객이지만 워낙 고객이 많아 기억해낼 수 없었다. 이 뒤에도 총지배인은 “저기 지나가는 고객님은 누구냐?”, “저 조각품은 누구 작품이야?”, “저 그림은 무얼 그린 그림이야?”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는 병어리라도 된 마냥,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배들에게 열심히 배운 호텔 용어나 규칙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이런 황당한 것만 물어보시다니!” 야속하다 싶은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지도 않고, 총지배인은 속모를 환한 미소만 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다시 온 총지배인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혹시나 해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또 물어보면 어찌지?” 싶어 걱정됐던 박 팀장은 이것저것 찾아보고 자료도 훑어보며 나름 준비해 두었다. 전보다 훨씬 나아진 답변을 들은 총지배인은 그리고는 또 아무 말 없이 웃음만 남기고 사라졌다. 아마 “다음에도 또 물어보실 거야” 하며, 이후에는 고객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누구와 함께 오셨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질문도 하며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두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총지배인은 나타나지 않고, 뜻밖에 고객들 사이에 나의 인기가 높아졌다. 밝고 친절하다는 칭찬,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칭찬, 그리고 수고한다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고객도 있었다. 재방문하면서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주는 고객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된 것이다. “총지배인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했던 일들인데...”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었지만 조금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고객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고객 덕분에 힘을 얻고 위로받게 됐다고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제야 무릎을 ‘탁’ 치고 총지배인의 속마음을 알게 됐다.

다시 한참 후에 혼자 근무하던 그에게 총지배인이 다가와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제 자신있게 웃으며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했다. “저 고객은 가족과 함께 오셨고, 저 고객은 레저를 목적으로 오셨고, 저 고객은 일행 중 생일인 분이 있어서 기념으로 오셨고, 저 고객은 멀리 어디에서 오셨고...” 스스로 대견할 정도로 술술 대답이 나왔다. 그런데 웬걸, 대견하다며 특별하고 멋진 격려의 말을 남겨줄 줄 알았는데,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해라” 한마디를 하고는 여전한 웃음으로 자리를 떠나가 버렸다. 그 후로는 총지배인은 더는 그 옆에서 서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리더는 직원들을 세세히 알고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는 사람,
정직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마친 박 팀장은 “아마도 총지배인님은 그때의 나를 보고 야단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닐까요. 이것은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 원익의 철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의 잘못된 점을 보고 화를 내며 지적하고 야단쳤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까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사실 본인들과 그 사람의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은 미래를 위해 또는 좋아하는 일을 위해 먼저 한 발 내딛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이때 한 직원이 궁금하다는 듯이 묻는다. “그렇다면 리더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팀장은 자율적인 교육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대답한다.

“리더는 직원들을 세세히 알고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는 사람, 정직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면 돼요. 여기에 능력을 덧붙이자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도전을 즐기며,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당장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첫발부터 내딛는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특별한 재능(Talent)이 있다고 믿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조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 고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직책이나 업무,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리더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W**



이승자/부지부장
김선미/대리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

항상 초심을 지니고
소통하는 리더,
팀원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솔선수범형 리더.



김선미 / 대리
입사 8년차
최근 관심사 / 워킹맘 2년차

첫째도 둘째도 안전



기본에 충실한
무한 팀워크의 힘

보다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자율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는 곳이 안전환경팀이다. 특히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 돌아가는 공정에서 안전에 관한 기획-실행-평가-개선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더하고, 여기에 100%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안전환경에 대한 사명감으로 사고 제로를 현실화하고 있는 10인의 안전지킴이들을 만났다.

김수엽 상무

안전환경팀을 소개한다면

원익머트리얼즈가 제조하는 반도체용 고순도 특수가스와 디스플레이 소재 제품 등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적합하게 생산되도록 전 공정에서 사고 예측, 유해위험요인 발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1명과 팀장·부장이 각 1명, 과장·대리가 각 2명, 사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마다 산업안전과 환경, 가스, 산업위생, 위험물, 건설 등 전문 분야 자격을 갖추는 등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업무상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장 안전과 자율안전문화 구축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안전작업, 점검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시 대응체제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안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원자재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안전활동이 안전환경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모든 임직원이 같이 생각하고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팀의 자랑이 있다면

철저한 안전의식, 확고한 직업의식과 매사 긍정마인드를 갖춘 팀원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춘 자원들이죠. 관리자들이 양청, 오창, 전의사업장에 상주근무를 하다 보니, 매번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의중을 알 수 있는 우리는 동료애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안전환경팀의 운영 목표는

올해 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ZERO’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환경팀에서는 법규준수, 사각지대 집중 관리, 위험성평가 기반 잠재위험 발굴·개선,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안전환경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의 5대 중점 달성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가능성까지 ‘ZERO’

원익머트리얼즈가 취급하는 특수가스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터. 이동준 팀장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작업장 어느 곳에서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스와 화학물질은 취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사업장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불안정한 행동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환경팀원들은 집요하리만큼 안전사항을 점검합니다.”

박병배 부장은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팀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근로자들과의 대화, 연구실현실·분석실·식당·가스저장소 등의 사각지대 위험관리, 교육, 점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경영방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환경인 만큼,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환경이란 생산시설의 착공에서부터 완공 후 가동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부서 간의 협업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수엽 상무는 “팀원들에게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의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W**



완전무결한 안전이라는 결과는 결코 과정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바로 안전환경팀원의 모든 마음이다.

누구보다 앞선
최고의 안전환경 관리 시스템

최근 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데에 빠짐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안전경영, 녹색경영이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깊숙이 안전과 환경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의 비전과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안전경영과 녹색경영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업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이 그 좋은 모범사례다.

“날이 갈수록 안전환경 업무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각종 폭발사고, 불산 누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언론에 소개됐던 것처럼, 사람들의 부주의와 안전환경 마인드 망각으로 생활터전은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안전환경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김수엽 상무는 2016년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Best Partner에 참여해

안전혁신상을 수상한 이야기, 삼성그룹 전 협력사들 가운데서 안전환경상을 수상할 정도로 안전환경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수준 높은 안전관리, 통합방재센터 등의 비상대응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는 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죠. 말 그대로 안전한 환경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타 사업장에서도 우리 안전환경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을 만큼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Plan-Do-Check-Action’으로 순환되는 안전환경관리 원칙에 따라 회사의 안전환경 수준을 진일보 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힌다.

배려와 솔선수범으로
최상의 팀워크 이끈다

안전환경은 24시간 관리되어야 하기에 팀원 전체가 제대로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체 모임이란 분기 행사처럼 치러지지만 팀워크만큼은 최고임을 자랑하고 싶다.

고참 사원과 후배 사원 간에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이에 기인한다. “팀장을 비롯해 중간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늘 긴장감을 안고 해야 하는 일이라 근무시간이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스스럼없이 팀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팀워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을 근무하다보니 자연스레 현업에서 작업하는 동료들과도 정이 들 수밖에 없다.

“타 팀이지만 안전환경이라는 울타리에서는 한 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하죠. 친절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해야 하지만, 그러기에 작업안전에 대해서 건성건성 넘어가서는 안돼요.”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안전환경팀. 완전무결한 안전이라는 결과는 결코 과정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다.

서로 북돋우며 신뢰를 쌓고, 열심히 재미있게 일하는 것. 바로 안전환경팀의 모토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환경 우수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처럼 뜨겁다.

W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는 명제는 수학적으로는 틀리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딱 부합하는 의미죠. 아흔아홉 가지의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더라도, 놓친 단 한 가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새기면서 완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연

이상훈 과장과 구찬희 사원이 멘토와 멘티로 만난 것은 3개월 전, 신입사원 공채 이후 원익홀딩스 재무팀에 소속된 때다. “멘토링 코너에 나오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가요?”라며 머쓱해했지만,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봄에 이만큼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까 싶다. 입사한 지 7년 차인 이상훈 과장과 사회 초년생인 구찬희 사원.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두 사람을 만나봤다.

원익홀딩스 재무팀
멘토 이^상훈 과장



원익홀딩스 재무팀
멘티 구^찬희 사원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구찬희 사원은 아직 예쁘게 치장하고 친구들과
과 맛집 찾아다니는 데 더 관심이 많을 나이다. 하지만 1월, 원익인이 되어 '원익홀딩스 재무
팀 구찬희'라는 명찰을 목에 건 그는 그러한 알팍한 선입관을 깨주었다. 이상훈 과장은 구찬
희 사원과 만난 첫 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구 사원의 첫 인상은 지적이고 차가워보였어요. 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이 밝
고 잘 웃고,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마음과 자
세가 참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 처리도 빠르고, 서류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 똑 부러진 재원이 들어왔다 싶어요. 씩씩이도 계획적인 것 같고 보통 월
급을 타면 뭘 살지 돈 쓸 생각부터 한다는데, 또래들하고는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구찬희 사원은 선배 직원들이 좋고, 동기들과도 돈독해 하루하루 직장생활이 즐겁기만 하다
고 말한다. 회사에 대한 호기심, 업무에 대한 욕심이 커서 어서 빨리 이상훈 과장의 능력을
본뜨고 싶다는 그다.



“이상훈 과장님은 회사에 대한 열정과 업무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예요. 덕분에
정말 소소한 것도 거리낌 없이 물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무팀의
기획 파트에서 주로 서포트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여쭙보는데 그때마다 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입사 전 회사생활에 대해 막연하게 품었던 걱정이나 두려
움이 해소됐어요.”

아직은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파악하고 적합한 포지션을 찾아가고 있다는 구찬희 사원.
이런 그에게 이상훈 과장은 혹시나 지치지 않도록 업무 종류와 강도, 휴식 등에 많은 신
경을 쓰고 있다며, “적극적인 구 사원의 모습에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한다.

“재무 분야의 업무 특성상 회계 지식과 정보 분석력이 요구돼 험겨울 만도 한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야무지게 일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요. 마치 저의 신입 시절을 보는 것 같
다니까요! (웃음)”

이상훈 과장의 취미는 축구와 힙합, 여행이다. 축구는 6살 때부터 즐겨했고, 힙합은 간단한 작곡과 피아노 연주가 가능할 정도다. 여행에도 관심이 많아 그동안 다녀온 해외여행 국가가 27개국에 이른다고. 구찬희 사원이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스페인의 이비사(Ibiza) 섬을 꼽는다.

“낮에는 지중해의 휴양지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밤이 되면 섬 전체가 클럽으로 변하는 신기한 곳이에요.”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멘토가 된 이상훈 과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축구와 음악을 좋아하는 데, 걸음걸이도 힙합 아티스트처럼 걷는다고(웃음).” 구찬희 사원의 취미도 여행이다. 다만 혼자인 것을 좋아해 도보 여행을 즐겨하는 편이라고. 파리에서 2주 동안 도보로 걸어 다녔던 기억을 최고의 여행으로 꼽는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도보 위주로, 올해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곳곳을 누벼보고 싶다는 그다.

좋은 것을 나누며,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해요. 그래서 재무팀 누구든 배울고 싶어 하는 후배죠. 엄격한 조직관계였다면 이처럼 빨리 친해지고 적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상훈 과장님은 어떤 문제든 창의적인 접근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분입니다. 그친가하면 조직 사랑도 넘치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고 선임견이 없어 존경을 받는 최고의 멘토입니다.”



“여행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되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재무팀 직원으로써 부족한 회계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열심히 취득하고, 또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가 많은데 인포그래픽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공부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거예요.”

다부지게 말하는 구찬희 사원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상훈 과장은 “일에 집중하되 워커홀릭이 되지는 말자”고 당부한다. 업무에 몰두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있어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그다.

“조직문화에서도 개인의 개성(캐릭터)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유연한 사고는 조직에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회사의 도전과 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구 사원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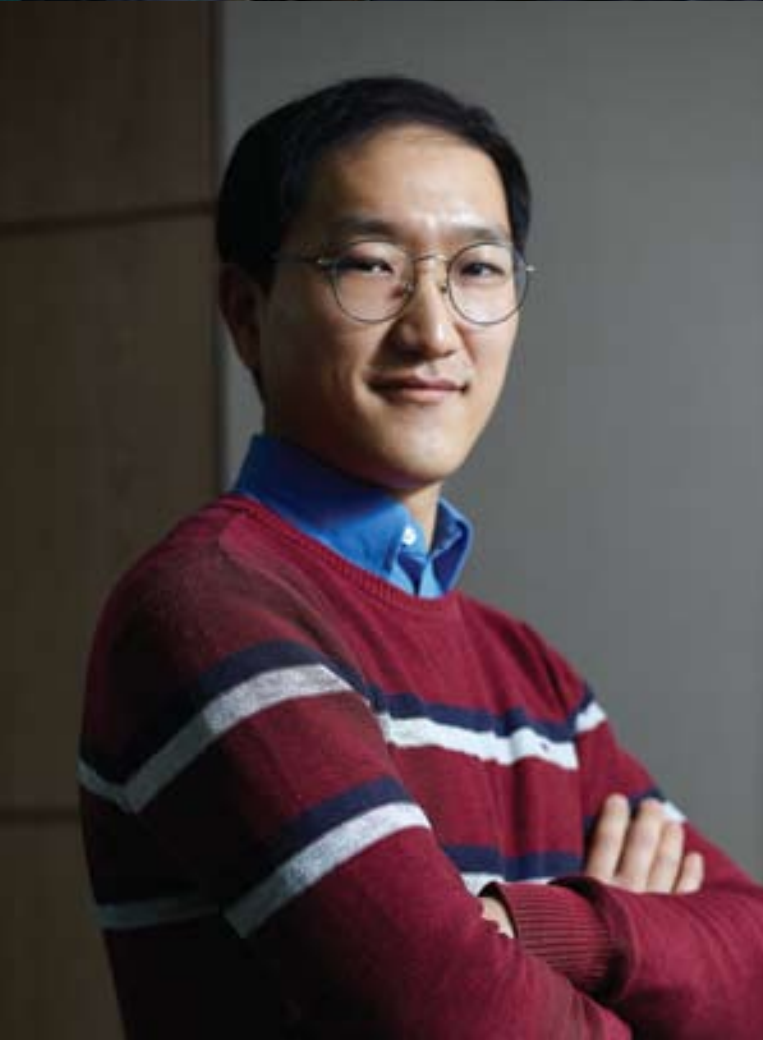
시작을 함께한 인연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순수하고 싱그러운 시절을 기억해주고, 성공을 도와주는 존재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인연, 이상훈 과장과 구찬희 사원의 인연이 그러할 것이다. 올해 IR(Investor Relation) 업무에 집중하여 회사 성장에 일익이 되고 싶다는 이상훈 과장,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구찬희 사원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본다. **W**



위광희 상무 | 안양혁 대리
임현옥 부장 | 최광수 과장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세계무대를 정복할 것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치면 언제나 내일의 새로운 꿈이 떠올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테라세미콘 마케팅2팀 사우들. 얼마나 성실하게 꿈에 다가갔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희망을 품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은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이들이 원익인에게 자신감 있게 성공을 쟁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최대의 성과,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주효

중국 출장 중에 수상 소식을 듣고 우리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으로도 팀으로도 무척 영광스러운 상이고, 우리 원익 전체에서 받는 상이라 더욱 기쁘고 뿌듯했죠. 2017년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해였는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 준 마케팅2팀 구성원들에게 우선 고맙고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사드(THAAD), 한한령(限韓令) 등의 영향으로 작년 한해는 한국기업들의 무덤과 같았지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었지만 중국 시장은 우리 같은 한국기업에게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중국 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고객 니즈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던 팀원들 덕분이었어요. 우리 팀은 상해 법인에 나가 있는 팀원을 포함해 5명인데, 다들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재원들이라 문화적인 포용력이 장점이에요. 평균 나이도 30대 초중반이라 젊은 편이죠. 고객, 예비 고객 가릴 것 없이 자주 만나면서 의뢰·상담이 올 때마다 ‘A에서 Z까지 가르쳐준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었어요. 중국에 오래 머물면서 얼굴을 익히고, 그런 성실한 마음자세가 통해서였는지 주문 의뢰가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가진 경쟁력을 심분 활용한 것도 중국 고객들에게 크게 작용했어요. 주력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점, OLED 패널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고, 고객들도 안팎의 평가들을 접하며 우리를 신뢰하게 되면서 수주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됐죠. 그 과정 중에 기술 부서, 지원 부서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까다로운 질의에도 발 빠르게 응대해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19 도약을 위한 준비에 철저히 임할 터

2014년 이래로 매년 두 배 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열정과 희생정신, 팀과 협업 부서와의 협동심이 삼위일체가 되어 발휘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경쟁사들의 가격 경쟁, 고객사의 해외 수출 제한 조건을 극복하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원익의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은 연간 120일 이상을 체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화에 힘쓴

팀원들의 노고 때문이었어요. 해외 출장을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해야 했던 최광수 과장이나, 석사 논문을 겸해야 했던 임현옥 부장 등 모두가 큰 공로자죠.

2016년까지만 해도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커졌죠. 국내의 경우 반도체 장비 투자시기가 막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반면 해외 시장은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였어요. 올해는 국내의 시장 모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어요. 아마 2018년은 내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

는 것이죠.

사실 이 시기를 잘 보낸다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상담·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고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 바쁘게 하나하나 점검해가며 준비해나갈 생각입니다.

강인한 의지로 온리원(Only One)이 될 것

2010년 입사해 설계 부서를 맡아온 임현옥 부장은 2013년 팀 창설 멤버로 참여해 세일즈에 기술적인 깊이를 더하고 있어요. 다른 팀원들은 꾸준히 해외 영업을 맡아온 베테랑들이고요. 다들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분위기 자체도 젊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요. 회의 발언이라든지 의사 전달에서도 직급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죠.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서 존중하는 마음, 다들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번에 원익인상 수상을 통해 여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간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베스트원(BEST ONE)이 모든 것을 잘 하는 팀이고, 온리원(ONLY ONE)이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팀을 뜻하는 거라면, 현재까지는 베스트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베스트원을 넘어 온리원인 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하고, 각자의 열정을 더할 필요를 느껴요. 비단 우리 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만큼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회사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원익만의 브랜드 가치가 무엇일까 말할 때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발전시켜야겠죠.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해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한다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온리원 원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원익'이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팀도 출선해서 선봉에 서는 역할을 맡고 싶어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무이한 팀, 최고 중의 최고가 되어 보겠습니다. **W**

THE 2017 WONIK PRIZE

대상
이승호 부장
테라세미콘

생산부문상
최광업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기술개발부문상
공철민 상무 외 10명
원익아이피에스

관리혁신부문상
김민철 과장
원익머트리얼즈



생각을 나누며 함께한 봄날의 기억

동탄 연경양고기 휘귀
냉장 생양고기 숯불구이 전문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8 워터밸리
031-8015-5526

처음 만난 사이지만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하루밤 새 죽마고우처럼
튼튼한 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다.
글로벌로 나아가는 원익의 기술개발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네 사람. 한 잔 두 잔 건배를 하다 보니
긴장감도 스르르 풀리는 것 같다. 벚꽃망울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의 저녁, 서로 생각을 나누며
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처음 뵈겠습니다

“우리 술 한 잔 기울일까요?
술은 잘 못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셔볼래요.”
자연스레 건배를 나누는 사람들.
같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줄 수 있는 이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한
만찬. 시간은 깊어가고, 언제 어색했었냐는 듯
하하 호호 웃으며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져간다.
일하는 곳은 달라도 서로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임을 깨달은 소중한 만남.

장원준(원익테라세미콘 반도체연구소 상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식(원익아이피에스 시스템설계팀 부장)
사무실에서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네요. (웃음)
장원준 언뜻 보니 제가 연장자인 것 같아 먼저 소개할까요? 저는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입사도 가장 늦은 것 같은데, 작년 4월 17일이 입사일이거든요. 하하. 그 전에는 우리 고객사였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12년, 양산라인 11년 등 23년을 지냈어요. 원익테라세미콘에 와서는 디퓨전 부문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고객사에서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인데, 대단하십니다.
장원준 실은 아내의 권유가 컸어요. 다른 나라, 다른 회사보다 이왕이면 고국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존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거라고요. 그것이 큰돈을 버는 것보다 값지다고. 이 말을 듣고 고심했던 것이 해결되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죠.
백종민(원익머트리얼즈 가스공정팀 책임연구원) 결정에 후회는 없으셨어요?
장원준 아마 다른 회사였다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내심 ‘이런 설비가 개발



원익아이피에스
시스템설계팀
김태식 부장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뭘지는 아직 비밀입니다만(웃음) 머릿속의 콘셉트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실용화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 회사가 아니었으면 조직 원리에 휩쓸려 이도 저도 안 됐을 겁니다. 고객사의 반응도 좋아서 조만간 첫 결실을 얻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태식 참 기쁜 소식이네요. 원익 가족 전체로 봐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장원준 그동안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이 길을 잘 닦아주신 덕택이죠. 부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어요?
김태식 저는 2004년 5월에 입사했으니 14년이 됐네요. 입사 후 쭉욱 반도체 장비 설계, 그중에서도 메탈 공정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동안을 회상해보면 디바이스는 점점 작아지고 기술은 더욱 새로워지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백종민 한 직장에서 14년이면 굉장한데요? 저는 이제야 6년이 됐는데, 두 분께는 신참 같아 보일 수 있겠어요.
김태식 한곳에서 6년도 대단한 거죠. 저희 부서에는 20년, 18년 근속한 분들도 있는데요, 뭘. 그에 비하면 저는 뒤 따라가기도 벅칩니다. 하하.
장원준 와, 이 자리에 모인 분들 한 길 우물만 판 경우네요.

좋은 관계, 자유로운 생각

최연주(원익아이피에스 PECVD팀 대리) 안녕하세요! 급한 마무리 작업이 있어 늦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술잔을 보니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은데요(웃음). 저는 공정개발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해외 신규시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김태식 마침 기술개발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됐어요. 고객사, 협력사, 타 부서와 대화하면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거죠.
장원준 맞습니다. 때로는 영업 마인드도 필요해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기술개발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죠.
백종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가스공정팀은 14명 인원 모두 영업 마인드로 일하고 있어요. 주 업무가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특수가스 개발이니까요. 외국 기업의 특수가스를 국산화하고, 정제방법을 달리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객과 협력 부서와의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무릇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라세미콘반도
체반도체연구소
장원준 상무



원익아이피에스
ALD팀
최연주 대리

최연주 연구개발이 주 업무이다 보니 자연히 고객사와 대응할 일이 많죠. 더러는 데모 장비를 먼저 개발해 시연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설비팀과 공정팀이 한 팀처럼 자주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장원준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의 선입견 중의 하나는 기술개발자를 외골수로 보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식 사실 고집도 있어야 해요. 연구 프로젝트를 지속해가려면 흔들림 없는 강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고집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정해진 틀, 관념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로움이라고 해석해요. 오로지 연구만을 위해 몰두하니까 외부 시선으로는 고집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최연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부서 간이나 고객사와 격 없이 논쟁할 때도 있어요.

장원준 자율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기술개발도 다른 기술을 카피하는 정도, 단순 개선하는 정도에 머무를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백종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원준 저의 경우 신제품 카탈로그를 많이 봅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다가 가전제품 판매점을 둘러보면 매달 새로운 카탈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봤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하, 이렇게 신기술이 구현되어 진행되는구나' 느끼게 돼요.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현재 이러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어떻게 기술개발이 진행될지,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맥락을 얻게 됩니다.

김태식 오,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좋은 점을 알고 콘셉트도 많이 제안하는 법이죠. 저도 주말에 좀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웃음).



밖에서 본 원익 안에서 본 원익

장원준 1년 전에 원익을 봤을 때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판단했었어요. 부족한 인지도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막상 입사해보니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조만간 업계에서 선두에 오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어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반도체 장비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주 회장님으로부터 신입 사원까지 글로벌 컴퍼니가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니까요. 모두가 이 꿈을 펼쳐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식 저는 그동안 회사 안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회사의 장점을 절실하게 느껴왔답니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모두가 전력투구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외부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매력적인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백종민 내부 인력도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내부와 외부 구분 없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장원준 맞아요. 모두 원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저마다 마음이 한결같으니 충분히 백년대계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해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김태식 오늘과 같은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봐요! **W**



원익머트리얼즈
가스공정팀
백종민 책임



원익 인물 사전

원익인의 취향 존중
깨알 재미 프로젝트

#05

이재경 과장
씨엠에스랩 영업1팀 온라인 파트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841122

전갈자리

나의 계획은 진행중

6살이 된 딸과 단둘이 디즈니랜드로 2박 3일 여행 Go!

지금 먹고 싶은 메뉴

광주송정역 앞 떡갈비 골목에서 판
다는 그 떡갈비!!

나의 최고 애정 아이템

기기 종류는
모두 소중해요
그 중에서도 사진기와
스피커!!

주위 사람에게 한마디

내가 바쁘고 정신없어 주변 사
람들에게 어찌면 무심하게, 어
찌면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말
하지 않았을까 문득문득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영업1팀, SUS TF 정말 고맙고!!
혹시 내가 실수했다면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ㅋ 찡긐 어바웃 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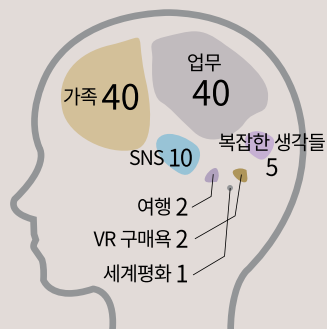
소환하고 싶은 내 추억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
와이프랑 살림살이 사러 이마트에 갔을 때!
요즘 바쁜 생활 때문에
와이프랑 공냥공냥 놀지도 못해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3가지

1. 가족
2. 기계
3. 호기심

요즘 나의 뇌구조(%)



내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

1. 결혼식 끝나고 다음날
신혼여행 가는 공항버스에서
와이프와 했던 얘기들!!
단순한 수다였지만 그냥 한 마디
한 마디가 즐겁고 설렘었던 순간
2. 우리 딸 만난 날! 아빠가 된
어색하면서도 벅찼던 순간

#06

변지영 사원
씨엠에스랩 마케팅부문 디자인파트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890615 쌍둥이자리

나의 계획은 진행중

1년에 한번 한나라씩 해외여행 + 운동 시작

나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3가지

1. 가끔있는 쿨한성격 (덕분에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듯)
2. 잠 (잠이 많은편, 하루 마치고 침대에
자려고 누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3. 칭찬 (자신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먹어야 하는 메뉴



매운떡볶이 먹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걱정하고 머뭇거리어서 더 많은
도전 못한 것입니다. 미리 앞서 걱정
하는 스타일의 성격이다 보니 20대
에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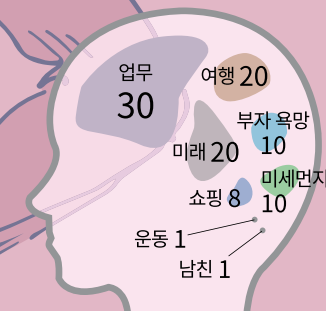
주위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신입으로 입사하여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칭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가장 행복했던 순간

1. 지난달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용
프라우 마을에 겨울 축제가 열려서 동네공
원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따뜻한 커피를 마
시며 그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
을 보았던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2. 취리히 미술관에서 몽크의 그림을 보았
는데, 그만의 붓터치와 색감이 너무 매력적
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갖게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나의 뇌구조(%)



오늘의 뮤직

ariana grande - problem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 뜨거운 엔진이 되다

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

임창빈 대표는 남보다 빠르게 가는 길보다 바르게 가는 길을 택했다. 정도(正道)를 지키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내재화를 꾀할 수 있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공에 대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빨리빨리” 외칠 때 신중하지만 뜨겁게 예열해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임창빈 대표.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는 그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정적으로, 더욱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2000년 CFO(Chief Financial Officer; 재무책임자)로 원익인이 된 이래 기업 경영의 길을 걸어온 임창빈 대표.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장수를 임명해야 할까요?’ 그러자 공자는 대답하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용맹한 장수보다, 겁은 많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소홀함 없는 장수가 더 좋겠구나.’

저는 이 대목에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고, 실현시킬 준비력이 있는 리더라면 반드시 백전백승한다고.



‘WHAT’S THE NEXT’의 해답을 찾는 과정

“2000년 회장님을 따라 기업경영에 발을 디게 된 이래, 여러 경영진과 함께 회사 성장에 집중해 많은 일들을 수행해왔습니다. 2016년 대표이사가 되어서는 치열하게 발로 뛰며 퀵츠사업부 CNC & ROTARY 장비를 도입(2016년 5월)하고, 퀵츠사업부와 세라믹사업부의 공장 증축(2017년 2월, 5월)을 완료해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동분서주하며 고락을 나눈 원익가족들이 참으로 애뜻하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임창빈 대표는 무엇을 말기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비결은 오랜 기간 수련을 반복하며 자기 역량을 키운 덕택이다. 남들이 꺼리던 MBA를 자원하였고, 어학연수와 자격증 취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술 서적, 경영 서적을 탐독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다. 원익인 이전에 습관화된 이것은 지금 대표가 되어서도 유효하다. 그는 여전히 전문 서적을 읽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도 마다하지 않는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올해, 그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그가 분석한 원익큐엔씨의 현재는 이렇다. “우리는 제조 기업이다. 우리는 강소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그 해답을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Hidden champion;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찾았다.

“히든챔피언의 목표는 세계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한 분야에서 전문기업이어야 하며 글로벌화에 전력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연구개발만큼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고,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일체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기업문화, 기본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정신도 필수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분석하고 실천해야 할 조건을 도출해낸 것이 이 내용이다. 그는 원익큐엔씨에 반드시 내재화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반도체 산업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임창빈 대표가 임직원들이 모일 때마다 강조하는 말은 “한국과 대만, 중국이 우리 사업의 핵심 지역이다. 반도체가 성장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두 곳이 있고, 대만도 동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도 커다란 성장세가 기대되는 곳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다. 원익큐엔씨의 해외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장 전략은 그대로 들어맞는다. 한국에 약 5백 명, 대만에 140여 명, 독일과 중국에 각각 60명과 30명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치열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해외 근무 임직원들을 만날 때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하는 데에는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항상 고객 접점에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은 꼭 경청해야 하고, 품질·제조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당부를 하는 이유를 “원익큐엔씨의 고객은, 우리보다 더 큰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가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쓰게 하려면 만족할 만한 기술·제품·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고객이 찾는 기업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기업, 원하는 품질을 확보한 기업, 신뢰도 높은 고객 대응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혹자는 그를 일컬어 맹장형 리더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는 인고(忍苦)의 리더라고 표현한다.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장수를 임명해야 할까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용맹한 장수보다, 겁은 많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소홀함 없는 장수가 더 좋겠구나.’ 저는 이 대목에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고, 실현시킬 준비력이 있는 리더라면 반드시 백전백승한다고.”

유연한 말투 속에 강단 있는 리더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장에 나서서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리더, 임창빈 대표에게서 지금보다 한 발 앞선 원익큐엔씨의 미래를 발견한다. **W**

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맹채연 대리

원익머트리얼즈 기술팀 권오성 사원



황홀경의 심해에 빠지다~

바닷속 탐험가 스쿠버다이빙

특별한 취미를 가진 두 분인데,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맹채연 저는 2016년 6월에 입사해 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맹채연 대리입니다. 임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복리후생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죠. 스쿠버다이빙을 한지는 3년 정도 됐어요.



권오성 아, 선배님이셨군요. 저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원익머트리얼즈 기술팀 권오성입니다.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기계배관 파트를 맡고 있어요. 스쿠버다이빙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맹채연 대리님에게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스쿠버다이빙이 어떤 레저일까요?



사람은 물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보통 2분 정도인데, 고압 공기 탱크와 연결된 수중 자가 호흡기(SCUBA)를 통해 잠수를 하면서 바닷속을 탐험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다른 수상레저보다 배우기가 쉬워서 교육만 잘 받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죠. 물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수영을 배우기가 꺼려지는 분도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면 금세 물에 적응이 돼요. 저도 물에 대해 공포가 있었는데 스쿠버다이빙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3년 전에 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이 있어서 호기심에 “5미터만 들어가보자!”고 하고 처음 경험해봤죠.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잠깐 동안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물속은 조금만 들어가도 생소한 신비로움에 호기심이 커졌어요. 이날 이후 “이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 제대로 배워보자”하고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죠.



2년 전 여름에 필리핀의 사이판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의 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 재미를 느껴 그해 11월에 처음으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스노클링을 할 때 다이버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물속 입장을 환영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반드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죠.

스쿠버다이빙의 장점, 매력에 대해 어필해주세요.



취미도 되고 신체 단련도 되고, 이를 위해 여행도 하게 되니 일석삼조죠. 물속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유롭다는 점도 매력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도 적죠. 개인적으로 땅 위는 탁 트여 있고 익숙한 풍경이라 그다지 신기하지 않은데, 물속은形形色색의 다양한 형태·색깔의 해양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신기해요. 수중 지형도 육지와 달라서 신비로움을 더해주죠.



저도 동감이에요. 물속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꿈꾸는 듯 묘한 기분을 줍니다. 풍경도 그렇고 상당히 몽환적이지요. 들리는 것은 저의 심장 소리, 숨소리뿐이라 더욱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가장 멋진 순간이라면 위로 천천히 부상할 때 물결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볼 때예요. 그 순간이 제겐 가장 황홀해요.



권오성 사원의 말을 듣다보니 수중이라는 특성상 프라이빗하다는 것도 나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평화롭기도 하고요. 들어가 보지 않고는 절대 모를 매력이지요.



다이버가 되어 가장 멋진 경험을 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원익인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사이판의 그루토를 먼저 꼽을래요. 수중 동굴이 있어 더욱 멋진 곳인데, 동굴로 들어가 바닷속을 한참 구경한 다음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다 보면 새섬이라는 곳의 해변으로 나오게 되죠. 풍광이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세계적인 스쿠버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또 한 곳은 발리카삭! 물속이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어 다이버들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흔히 ‘천혜의 자연환경’이란 표현을 쓰는데, 바로 여기가 그러한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최근에 부쩍 우리나라 바다에 흥미가 생겼어요. 익숙한 물고기와 해산물, 해초류들을 보면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익숙함이 주는 친근함일까요? 강릉의 사천해변과 영진해변에는 물고기가 다양하고, 울릉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중 환경을 자랑하죠. 개인적으로 최고의 경험은 통영항에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노대도에서였어요. 야간 다이빙을 했는데,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물속과 해수면, 하늘이 마치 경계 없이 이어져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죠. 눈이 빨려들 것만 같은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올해는 좀 더 우리 바다들을 둘러보려고 해요.



“물속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꿈꾸는 듯 묘한 기분을 줍니다. 들리는 것은 저의 심장 소리, 숨소리뿐이라 더욱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장소 도움말 제공
다이브 루덴스
www.diveludens.com



“처음, 강원도에서의 체험이 시작이죠. ‘5미터만 더...!’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잠깐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재미, 생소한 신비로움은 더욱 호기심을 키웠죠.



처음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려는 초심자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배우려고 한다면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스쿠버다이빙은 버디(짝)가 있어서 돌발 상황에 버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물속에서는 서로 의지할 수 밖에 없으니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혼자가 아닌 둘 이상 함께하기를 추천해요.



아마도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어요. 저는 물에 들어갈 때 보트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 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잠시의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엔 놀라울 만큼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물속 탐험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관절이 좋지 못한 분도, 어린이와 노인도 할 수 있는 레저니까 마음 편하게 즐겨보세요. **W**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친밀한 자유를 느끼다

머들령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고 흘러 장산호수로 모여들고, 호수 주변에는 많은 수목들-나무와 야생화들이 하늘과 바람, 물을 벗 삼아 계절 속에서 피고 진다. 시간이 잠시 진행을 멈추고 자연도 화사한 그대로 한 장면이 되어 추억에 아로새겨지는 곳, 바로 하늘물빛정원이다.

걷거나 혹은 바라보거나, 에코와 힐링의 만남

하늘물빛정원은 산과 호수, 정원이 함께 자리한 평온하고 아늑한 공간에 있다. 동편으로는 서대산과 서편으로는 만인산, 북편에는 식장산이 있어 한낮 햇살을 종일 가두고, 추풍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은 멀리 금강과 서해로 흘러간다. 고적한 한국화처럼, 소담한 수채화처럼 하늘물빛정원은 이러한 풍경 속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하늘물빛정원의 콘셉트는 '에코 힐링(ECO HEALING)'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볼거리는 상상보다 풍부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여줄 즐길거리 또한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휴식하고 체험하며,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에 마련돼 있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힐링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늘물빛정원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느릿하게 다니는 것이 좋다. 호수변 산책로, 허브식물원, 산림욕, 글램핑 등을 온전히 즐기려면 여유로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림 같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건강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몸도 적당히 힘을 빼야하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산과 물, 사람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이곳에서 '물의 맑음을 알고 산의 푸근함을 닮아가려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하늘물빛정원의 ————— 행복한 힐링 체험

하늘물빛정원내 식물원

하늘물빛정원 찾아가는 길

하늘물빛정원은 대전광역시가 지적에 있고, 충남·북, 전북이 가까워 주된 고객도 이와 비슷하다. 버스의 경우 대전에서 501번 버스 또는 금산행 시외버스를 타고 추부(마전) 정류장에 도착해 옥천 방향 시내버스로 갈아타거나 택시를 이용(약 10분 소요)한다. 차량으로 올 경우 네비게이션에 '장산저수지'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검한 1길 156(추부면 요광리 713-1)

전화·문의 : 1588-2613 / cwlee@wonik.co.kr



즐겁고 단란한 작은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행복 투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하늘물빛정원을 찾은 사람에게 산책과 힐링 테라피, 요가, 만찬 등으로 꾸며진 1박 2일의 ‘행복 투어’ 코스는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된다.

아침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마주한 장산호수를 바라보면 물빛이 생기를 머금고 충천연색으로 빛나는 것을 알게 된다. 호수변 산책로의 꽃과 나무들이 활짝 깨어나 수려한 자태가 물결에 비치기 때문이다. 가벼운 차림으로 싱그러운 수풀 향기가 가득한 산책로를 따라 차분한 마음으로 걷는 기분은 마치 별세계(別世界)에 이른 착각이 들게 한다. 산책로는 크게 세 곳.

향긋한 허브향이 코를 간지럽히는 ‘허브향내음 산책길’, 사계절 들꽃들의 수수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물빛정원 산책길’, 머들링 숲을 따라 그윽한 향취를 느껴볼 수 있는 ‘호반숲 산책길’ 등 어느 길이나 매력적이다.

힐링카페(안마기, 반신욕기)



늘봄의집

점심이 되면 채식문화 뷔페 ‘채담’에서 든든한 한 끼를 채운다. 제철에서, 제 땅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는 심신이 온전하고 조화롭도록 돕는다. 금산인삼과 콩고기, 샐러드가 입맛을 돋우고, 향긋한 허브차가 입안을 개운하게 한다. 식당에 접한 라이브 공연장에서는 감성적인 가요·재즈가 펼쳐지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함께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후에는 힐링 테라피와 요가를 즐긴다. 찜질과 족욕, 반신욕과 안마로 구성된 힐링 테라피는 어느 것이나 소홀함 없이 몸과 마음의 빈 곳을 채워준다. 참숯가마로 된 찜질방, 호수변을 바라보며 즐기는 족욕과 반신욕, 지친 신체의 활력을 일깨우는 안마 등을 경험하고 나면 두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여기에 몸속의 기를 순환시키고 신체 유연성과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요가를 더하면 그제야 신체와 내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컨벤션홀



그리팅맨



통림축제



식물원



저녁에는 몽골의 게르를 그대로 본뜬 식당 ‘머들령’에서 은은한 참나무향이 베인 삼겹살로 꿀맛 같은 만찬을 즐긴다. 담백하고 쫄득한 삼겹살, 구수한 된장찌개가 허기진 속을 달래준다. 식사 후 밖으로 나오면 어느새 어둠이 가라앉고 호수 주변에 형형색색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맑게 갠 밤하늘에 하나둘 별빛이 켜진다. 타박타박 걸어 오늘의 숙소인 글램핑장으로 들어선다. 자연의 자유로움과 낭만적인 분위기 그대로 오붓이 하룻밤을 지내기 딱 좋다. 준비해온 와인을 즐기는 것도 좋고, 긴 밤이 아쉬우니 보드게임이나 내부에 마련된 TV로 영화를 보는 것도 좋겠다. 무엇이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램핑 BBQ



다음 날 아침, 어제 만났던 호수변 산책로를 다시 거닐어본다. 아름다운 풍경과 정취는 여전하지만, 기분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이대로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이슬을 품은 잎사귀들이 더욱 생생한 색깔로 와 닿는다. 다시 한번 와야지,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니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W**



하늘물빛정원은 이벤트 중!

봄을 맞은 하늘물빛정원은 지금 이벤트가 한창이다. 먼저 하늘물빛정원에서 일정 금액을 결제할 경우 제주도 2인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여행상품권은 항공권과 렌트가 48시간 또는 요트투어로 구성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4월부터 시작된 이 이벤트는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행복센터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봄/여름 시즌 맞이 힐링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숯가마 찜질방과 힐링카페를 1만5천 원에서 1만 원(주중), 1만 2천 원(주말·공휴일)으로 할인하는 내용이다. 또한 3개월 단위로 100명씩 모집하는 행복 서포터즈의 경우, 행복센터 입장료와 카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종종 하늘물빛정원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

문의 : 1588-2613



씨엠에스랩 권혁화 과장 우리 원익의 계열사에 이런 곳이 있다는 데에 우선 놀랐어요. 평소 하지 못한 요가와 찜질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게 되어 활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부모님을 모시고 꼭 한번 오겠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 김옥범 대리 계열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진심으로 다시 와보고 싶어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여유롭고 한가하게 힐링을 즐길 수 있고, 찜질방도 별자리 콘셉트로 아기자기하게 마련되어 있고, 단체가 이용하기 좋은 더 넓은 찜질방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오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다 싶어요!



원익아이피에스 현서희 대리 많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 업무를 하다보니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멋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우리 원익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계열사이니만큼 원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원익머트리얼즈 은빛 대리 가족·친구도 좋겠지만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참 좋겠다고 생각돼요. 산책과 휴식, 힐링과 채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식 체험이 좋았는데, 육식을 주로 하는 제가 ‘이제 정말 채식이 맞나’ 싶을 만큼 맛과 질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원익머트리얼즈 임병하 사원 저는 4년 전에 가족과 함께 한번 와 봤었어요. 그때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놀랐습니다. 행복센터도 새로 생기고, 시설물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힐링을 주제로 한 시설이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WIDE



원익은 지금 ❶ 원익

이노젝터 피부미용치료의 새로운 바람
KIMES 2018 참가

원익은 지금 ❷ 원익아이피에스

행복에 한 발 다가서는 시간

원익은 지금 ❸ 씨엠에스랩

세상 가장 소중한 행복을 맞을 시간

원익은 지금 ❹ 원익머트리얼즈

직원의 행복이 기업의 행복
Company Meeting & Movie Day

명작예찬

도자기의 아찔한 곡예

행복일터

자유로운 열정, 꿈을 실현하는 원익

Hall A1

Hall A2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18

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3.15(Thu) - 18(Sun)
SEOUL, KOREA

Organizer
Korea E & Ex Inc.
KMDICA
KMDIA



KIMES 2018(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참가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KIMES 2018(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 열렸다.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전시회에서 ㈜원익을 비롯한 국내외 1,300여 개 기업이 참여, 3만여 점의 품목을 소개하며 성황을 이뤘다. ㈜원익은 이노젝터(INNOJECTOR)를 비롯한 여러 제품을 선보이며 첨단 의료기기·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미용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다

1983년 의료산업 분야에 진출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원익은 올해 KIMES 2018에 참가해 최신 트렌드의 의료기기와 관련 제품들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한 동안 세계 우수 기업들의 의료기기를 국내에 소개, 공급해왔으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에 역량을 쏟아왔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인 '이노젝터(INNOJECTOR)'가 그 산물이다.

KIMES 2018 기간 내내 참관객과 바이어들의 비상한 주목을 끈 이노젝터는 '바늘 없는 공기압 솔루션 주입기'라는 별명처럼 강력한 공기압을 이용해 다양한 솔루션을 진피층에 침투시켜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다. 레이저와는 달리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이 극히 적고 시술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으며, 솔루션을 골고루 스며들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탁월해 마이크로젯 인젝션 시스템(Injection System) 중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승룡 상무는 "피부 탄력 증가, 주름개선, 리프팅 등의 효과가 좋아 글로벌 미용치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근래에 일본·홍콩·태국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국 경쟁사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중국 시장도 품질인증(CFDA)을 획득하는 대로 진출해 우리 제품을 더욱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원익의 전시 부스에서는 색소 레이저 수술기기 'Synchro VasQ',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기 'Smart Xide2',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Artisential' 등을 함께 소개했다.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은 다양한 전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등 호기심을 보였다. 전시 기간 ㈜원익 직원들은 많은 상담을 통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바이어들의 반응을 체크하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원익,
이노젝터
피부미용치료의
새로운
바람



Total Solution Provider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KIMES' 2018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오랜 기간 의료기기의 수입·유통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도 수출 모델을 만들어 세계에 진출해보자'는 꿈을 키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주)아모레퍼시픽-중앙대학교와의 협력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노젝터를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고, 이번에 KIMES 2018에 전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알리고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제품의 특징점을 소개해주세요. >>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타 글로벌 기업 제품보다 피부 손상이 적고 시술자가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어 최고의 피부 미용 솔루션 시스템이라 자신합니다. 주입 구경(Hole size)이 100마이크론(μm)으로 극히 작운데, 타사의 경우 200마이크론 정도이므로 더욱 세밀한 시술이 가능하죠. 시술 시간이 짧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주)원익의 청사진, 향후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도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한류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 더욱 그렇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들 나라에 K-MEDI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선봉이 되고자 합니다. 이노젝터로 시작해 세계 무대에서 주목 받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업체와의 연계, 산학 연구개발의 참여, 해외 네트워크 개척, 지속적인 아이템 확장 등으로 기기와 솔루션, 홈케어에 이르는 분야에 원익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nterview

(주)원익 에스테틱사업팀
이승룡 상무





KIMES



KIMES는 198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 의료산업 발전의 궤를 함께한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다. 해마다 의료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초음파 검사기, 영상의학 장비, 재활의약 등 기술집약적인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의료, 친환경 의료폐기물 시설, 첨단 병원 시설, IT 의료정보 시스템, 환자수송 시스템 등 융복합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의 경우 내국인 69,336명과 해외바이어 3,757명 등 총 73,209명이 방문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의료산업 전시회로 인정받았다. **W**

행복에 한 발 다가서는 시간



자유와 소통, 그리고
행복. 원익의 핵심가치를
직접 몸으로 배우기 위해
공채 신입사원이 모였다.
봉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
난 자유로운 사고로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할 때 찾
아오는 행복을 가르쳐주는
지름길. 어르신들을 도우
는 자리임에도 내내 활기
찬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의 빈손에 숨겨진 사랑



“여기 계신 신입사원 여러분, 다들 직장 생활
잘 하고 싶으시지요?”(사)오산시 자원봉사센
터 정호순 선생님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네!”
우렁찬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열의에 찬 사원
들이 웅기중기 모여 앉은 곳은 오산시 자원봉
사센터. 매년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봉사
프로그램을 넣는 원익아이피에스는 올해, 발
마사지 봉사를 추천받아 진행했다.
발마사지는 반사구를 만져 뇌부터 척추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봉사활동이다.
평소 수면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마사
지를 한 날에는 숙면을 하신다고. 그러나 봉
사자를 구하기 가장 힘든 것도 바로 발마사지
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해야 하
는 일이라 선뜻 마음먹기가 힘든 탓이다.
본격적인 발마사지 교육에 앞서, 먼저 30분
간의 자원봉사 기본교육이 진행됐다. 정호순
선생님이 사원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다들 학창 시절에 자원봉사를 한 경
험이 있을 겁니다. 책임과 의무, 희생과 사랑,
나눔과 돌봄.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필수가 아님에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봉사
자분들은 제게 말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시

작했는데,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강자와 약
자, 받는 자와 주는 자의 경계를 허물어버리
는 것이 봉사자 가진 모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경청하던 신입사원이 손을 들고 질문
했다. “저도 몇 번 봉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잘 하고 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봉사도
잘 하는 법이 있나요?” 정 선생님이 엄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훌륭한 질문이네요.
봉사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대상에 대
한 이해와 동료들과의 협력, 나에 대한 정확
한 이해예요. 대상의 경우, 오늘 우리가 갈 곳
이 치매 어르신이라는 것이죠. 언제든 돌발행
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협력은, 동
료들과 어떤 일을 하든 나와 생각이나 행동방
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마
지막으로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내 몸이나
정신을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컨디션
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에는 질 좋은 봉사를 할
수 없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직장 생활에도
통용되는 개념이니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훌륭한 원익인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상처를 어루만지듯 발을 감싸다

김수경 교육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발마사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우리의 발에는 반사구라고 해서 뇌와 신장, 척추 등 모든 신체와 연결된 혈점이 있다. 이 반사구들은 순서에 맞게 만져주면 온 몸 순환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발을 만지며 마음을 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도구가 필요 없어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가족이나 연인은 물론 스스로 자기치유도 가능해 배워두면 유용하다.

“가장 처음으로는 오일을 바른 뒤 발목을 중

심으로 발을 꺾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이 약하니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뇌에 해당하는 엄지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므로 여러 방향에서 꼭꼭 눌러줍니다. 나머지 발가락을 모두 마사지한 후에는 심장에 해당하는 발바닥 중심부위를 문지르세요. 그 후로는 척추에 해당하는 발 안쪽과 어깨에 해당하는 발 바깥쪽을 마사지하고 발등으로. 그 후 온 발을 두드리며 마무리를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지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접 실습에 나선 신입사원들.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발을 만지니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까르륵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운다. 더러는 꺾꺾 힘주어 누르는 혈을 따라 곡소리가 나오기도. 조가은 사원은 생글생글 웃

으며 만족을 나타냈다. “대학 시절, ‘동행프로젝트’라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교육 봉사

에 한 학기 동안 참여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 공부를 도와줬지요. 취업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데, 아이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게 봉사는 희망적인 기억이에요. 함께 3주의 교육을 받은 동료들과 봉사를 하며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익아이피에스에 2016년 하반기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2년 동안 준비했기에 지금 이 시간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에요. 앞으로 동료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고 배워가며 반도체 장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김종수 사원 역시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매일 안에서만 교육을 받다가 이렇게 활동적인 시간을 가지니 리프레시 되는 기분입니다. 봉사라고 해서 허드렛일을 할 줄 알았는데, 봉사 본연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지난여름부터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간절히 바라던 시간이고요. 대학 졸업 전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자람을 하시는데, 그럴싸한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오늘 배운 발마사지도 가서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익아이피에스의 ‘자유와 소통’이라는 기업 핵심가치가 참 좋은데요. 저도 기업 문화를 잘 지켜서 훗날의 신입사원들에게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세원노인전문요양원으로 향하는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상기되었다. 들뜬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원익인들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가 담겨 있었다. **W**



발을 만지며
마음을 어루만진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폭 주무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맞을 시간

“아기 엄마가 좋아해야 할 텐데”

“아기 엄마가 좋아할까?” 아기 옷이며 신발, 장난감, 젖병, 동화책 등 아기용품들 가지런히 배치하고 다 함께 즐길 다과를 챙기던 사우들이 열려스러운 듯 말한다. 알록달록한 풍선에 바람을 불고 있던 한 사우가 “좋아할 거야. 생각보다 근사할 걸?”이라 화답한다. 한 남자 사우은 노트북과 스피커를 이리저리 만지며 흡사 리허설 하듯 음악과 영상을 틀어본다. 파티를 시작하기로 한 오후 4시에 가까워오자 사우들의 움직임도 바빠진다. 주위를 오가던 사우들도 차출돼 영접결에 풍선을 불고 조명도 달며 파티 준비에 동참한다. 부산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정각이 되자 이윽고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됐다. “다들 모여 봅시다!” 목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사우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와, 진짜 예쁘다!”

씨엠에스랩 ‘베이비 샤워 파티’

봄별 좋은 어느 날, 씨엠에스랩 사우들이 삼삼오오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은 곧 세상에 태어날 김지혜 과장의 아기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는 날! 저마다 미소 한가득 머금은 사우들이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이 날의 추억을 한 장면씩 넘겨본다.



“곧 태어날 아기를 축하합니다”

가장 먼저 입성한 것은 여성 사우들. 환한 웃음 속에 왈자지껄 감탄사를 내기 여념 없다. 뒤이어 남성 사우들이 등장하자 순간 어딘가 들리는 목소리. “칙칙해.”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흐흐흐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이내 하하 호호 커다란 웃음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 이날의 주인공인 김지혜 과장이 쑥스러운 듯 조심스레 입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진다. 환영을 받으며 가운데 자리에 앉아 연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기쁨 반 놀라움 반이다. 장내가 정돈되기를 기다려 사회자가 간단한 소개로 베이비 샤워 파티를 설명하고, 전 직원들의 마음을 대신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는 김 과장님의 5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이자 다른 사우들도 출산과 육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의미, 그리고 회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렇지만, 이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우리 사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다같이 김 과장님을 축하해주세요!” 다시금 큰 박수가 터졌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요”

사우들이 즐겁게 웃는 사이, 스크린에 사진들이 비친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김 과장 부부의 만삭 사진. 부부의 맑은 얼굴 속에 행복과 기대, 설렘 등 다양한 표정이 읽힌다. 사우들은 사진을 보면서 “예쁘다”, “행복해 보인다”며 감동을 하였다. 그다음 사진은 김지혜 과장의 어릴 적 사진. 흡사 <둘리> 만화의 마이클 캐릭터처럼 높게 부풀어 오른 머리카락을 보며 와하하 웃음이 쏟아져 나온다. 뒤이어 신랑과 신부의 미혼 시절 사진을 보고 여성 사우들이 “우와”하고 놀란다.

마치 조각 미남과 같은 신랑 얼굴을 보고 감탄했던 것. 그리고 두 사진을 합성해 곧 태어날 아기의 얼굴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다시 한번 “와아”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각미남 신랑과 씨엠에스랩 대표미녀의 장점만을 닮은 아기 얼굴에 “우리 사돈 땃자”며 미리부터 점찍기도 했다. 마지막 사진은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눈·코·입이 또렷이 나온 모습에 저마다 눈을 떼지 못했다. 5월 말,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해보는 듯하다.

우 리 ——— 같 이 ——— 축 하 해 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엄마입니다”

베이비 샤워 파티의 2부 순서는 김지혜 과장에
게 전하는 사우들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김 과
장의 세 가지 고민인 ‘엄마로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둘째가 있으면 좋을까?’, ‘육아 휴직
때 꼭 해야 할 것은?’에 대해 각자 고민 해결사
로 나선 것. 사우들은 첫 번째 고민에 대해 ‘아이
와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을 주문했고, 두 번째
고민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면서 ‘첫 아이
가 세 살 무렵이 되면 둘째 생각이 간절해질 것’
이라며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세 번째 질문에
서는 많은 해답이 쏟아졌다. ‘그동안 해보고 싶
었던 것을 해볼 것’, ‘아기가 조금 큰 후 엄마 체
력이 있을 때 여행을 가볼 것’, ‘업무에 돌아오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할 것’ 등 생생
한 조언이 많았다.



이어서 김 과장에 대한 깜짝 퀴즈 이벤트로 진행됐다. 먼저 김 과장의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인지, 태어날 아기의 몸무게는 몇 kg이 될지
묻는 퀴즈에 사우들은 예상치를 이야기하며 웃음바다가 됐다. 아기의
몸무게는 작은 용지에 숫자를 쓴 후 모아두었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정답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것으로하기로 했다. 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출산·육아의 선배라 할 수 있는 사우들의 선물 증정으로
마무리됐다. 알뜰한 마음과 따뜻한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바라보며
호뭇하게 웃는 김 과장의 얼굴 속에 가득 행복감이 넘쳤다.
“이 마음 꼭 간직할게요.” 이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은
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W**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동료들의 좋은 선물도 받고, 더구나 사보에 실린다기에
깜짝 놀랐네요. 아기는 5월 말에 출산 예정인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직원의 행복이 기업의 행복.



WONIK MATERIALS

COMPANY MEETING & MOVIE DAY

오창 메가박스, 영화 - 레디 플레이어 원

극장에서 컴퍼니 미팅을, 기대와 설렘의 시간

따스한 봄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4월 어느 날,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들이 한 극장에 모두 모였다. 오후 4시 30분, 아직 한창 업무 중일 때인데 이들이 극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4월의 컴퍼니 미팅이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사전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듯 긴장한 표정들이다. 그래도 외부로 나와 행사를 한다는 것에 설렘과 기대의 눈빛이 읽힌다.

이윽고 입장시간이 되자 입구에서 나눠주는 햄버거와 음료를 하나씩 챙겨들고 객석에 앉았다. 차츰차츰 자리를 채워가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스태프들이 마이크 점검, 프레젠테이션 점검을 하기에 여념 없다. 10여 분이 지나자 입장이 완료되고, 이윽고 컴퍼니 미팅이 진행됐다. 사회자가 나서서 “이달의 컴퍼니 미팅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경험일 수 있도록 영화와 함께하는 콘셉트로 진행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임직원들은 모처럼의 이벤트에 반가운 듯 박수로 화답했다.

첫 순서는 우수사원 시상이었다. 설비팀 백현석 대리는 협의회 활동을 비롯해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회사와의 협업

에 기여한 공로로 Communication 상을 수상했다. 생산2팀 임종영 대리는 전의사업장의 신규공정(L-Mix) 담당자로 공정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Best Practice 상을, 품질관리2팀 임재석 대리는 HCDS 분석기법 안정화와 품질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Innovation 상을 수상했다.

한편 품질관리 3팀 오희서 과장은 기업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을 도모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모범근로자상을 받았다. 이어서 사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우수협력사로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다음 순서는 기업 소식이었다. 먼저 지난 3월 22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우성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졌고,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이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이외에 해외 소식과 시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고, 올해 경영 목표와 1/4분기 경영 현황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원익머트리얼즈 컴퍼니 미팅 & 무비데이

4월 5일, 충북 청주시의 오창 메가박스에서 원익머트리얼즈의 컴퍼니 미팅과 무비데이가 진행됐다. 임직원 300명 가까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기존의 월례 컴퍼니 미팅과는 달리, 미팅 후 단체 영화 관람을 함께함으로써 이색적이고도 뜻깊은 자리였다. 임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를 즐기며 단란한 한때를 보냈다.

우리는 한가족, 원익의 이름으로 뭉친다

기업 소식에 이어 한우성 대표가 스크린 앞으로 나와 CEO 메시지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회사 밖으로 나오니 모두들 기분 좋게 들뜬 얼굴인 것 같다. 이런 행사가 종종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근의 경영 화두에 대해 설명하면서 환경안전과 물류이동, 고객이동이 더욱 스피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동시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의 해외 거점과 국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소개하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기를 당부했다.

“올해에 우리의 한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이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 신입사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고, 선배들이 술선하는 자세로 이끌어주며 숙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한 대표는 주52시간 업무제도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언급했다. 기존의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컴퍼니 미팅의 마지막 구호는

우리의 핵심가치를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소통·행복!”

뒤이어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들만의 영화상영이 시작했다. 이날 함께 본 작품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SF모험 영화였다. 2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동안 임직원들은 영화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공유했다. 영화가 끝난 후 한 사우는 “영화의 재미와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대만족!”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해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다른 사우는 “간만에 보는 영화도 좋았고, 극장에서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며 종종 이와 같은 행사가 있으면 하고 바랬다. 극장을 나서는 임직원들 모두 기분 좋은 행복감을 얻은 듯 밝게 웃는 얼굴이었다. **W**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상을 수여하여 주신데에 감사 합니다. 이제까지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제데로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 하였는지 제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잘해서 주신 상이 아니라 더 잘하라는 의미의 상으로 여기고 함께 노력해 주시는 머트리얼즈 한마음협의 회 위원분들께 이공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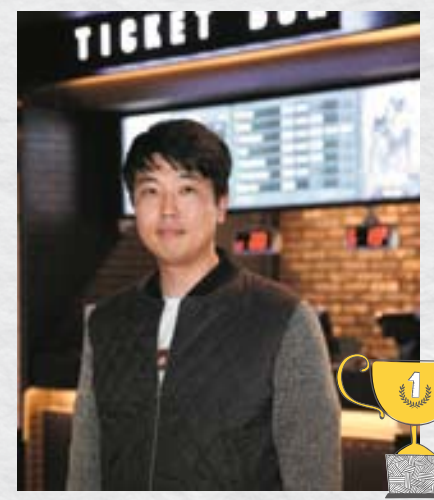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룹 핵심가치중 하나인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업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수사원

백현석 대리
설비팀

우수사원

임종영 대리
생산2팀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안전환경팀, 설비팀, 기술팀이 함께 협업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감개가 새롭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

생산2팀 오윤영 팀장님이 먼저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 놓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셔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앞으로의 목표

회사의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interview



오늘에야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임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새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

권정훈 과장님, 이수한 부장님 등 모든 분들이 도와 주신 결과여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목표

회사의 프로젝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 일하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파이팅!

우수사원

임재석 대리
품질관리2팀

도자기의 아찔한 곡예

원익에서 그를 만나다.
도예가 신동원



신동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프론트 로비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염전길 255 | T. 033) 650-0000
풍호에 조성된 퍼블릭 18홀, 전장 7,272야드, 링크스 코스 컨셉의 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전 객실 오션뷰 호텔로,
루프가든 증축을 통해 수영장·사우나·레스토랑·풋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

3rd Gallery

신동원의 작품 속 생활 오브제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업 소재로 등장시켜 작업 활동과 일상이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일상적 오브제 연작들의 작품구성과 패턴과의 조화, 내포된 의미를 관람객들과 촉각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교감하기를 바란다.



투시법과 원근법을 무시한 채 삐뚤름히 선 서랍장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도자기들, 그 맑은 도자기는 당장이라도 똑 떨어질 듯 위태로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자기로 만든 부조 작품으로, 벽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아름다운 티포트나 찻잔을 볼 때 괜한 불안 심리를 경험해 봤을 것이다.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지는 건 아닐까? 옮기다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건 아닐까? 예쁜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세트 상품처럼 따라오는 이런 기우를, 도예가 신동원은 한 번에 날려주었다.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의 크랜브룩 아카데미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서울의 주요 갤러리에서 총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내 외 아트페어에 다수 소개되었다.

신동원의 작업은 섬세하다. 이는 캐스팅(casting)이라는 예민한 제작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예전공자들에게 미감(美感)과 실용성이 적절하게 조합된 도자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도예가로서 공예적인 섬세함은 작품에 남겼지만, 그 조형성은 도기가 아닌 “도조(陶彫)”라 불리는 도예조각분야로 자신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켰다. 도예란 물, 흙, 불에 인간의 감수성과 기술이 조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든다. 특히 ‘불’을 사용하는 도예의 매력은, 예측이 쉽지 않아 ‘불의 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의 근원은 “care”에 관한 문제이다. 광의로 해석하면 care란 어떤 대상에 대한 ‘책임’일 것이며, 협의적 해석은 ‘걱정·주의’와 함께 ‘보살핌·보호’라는 의미로 작가는 후자 쪽에 작업의 전·후 그리고 보존의 문제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즉 care란, 인간의 관심 대상에 대한 끝없는 손길을 요구하는 것으로 작가는 소재에서부터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작가의 백색화면은 흰 도화지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낸다. 그러한 이미지는 다분히 경직되고 패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이미지를 그려 넣듯 회화적 느낌으로 시각적 일루전(illusion)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도예작업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흙에 수를 놓으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관람객들에게 도예작업의 새로운 이면을 보여주며 신동원이란 작가를 각인시키고 있다. **W**

풍요로운 정신, 절제된 자유로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하는 자세는 원익인이 지녀야 할 바른 가짐이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상(理想), 자유롭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

원익큐엔씨 / 임창빈 대표

자유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원익 안에서의 자유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배는 후배를 믿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며, 자율과 책임 하에서 함께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원익홀딩스 / 이상훈 과장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원익인

원익문화의 강점은 열린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에서부터 갓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수평적인 사고로 언제든지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잘 갖춰져 있다.

원익엘엔디 / 박민철 팀장

자기관리에 철저한 원익인

‘자’ 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익머트리얼즈 / 권오성 사원

생각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익

밖에서 본 원익은 일견 평범한 회사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본 원익은 생각의 자유가 존중받는 회사였다. 자율적인 문화 속에 엄정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놀랐다.

원익홀딩스 / 구찬희 사원

저마다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 곳

각양각색의 개성이 모여 꽃피는 곳이 원익 아닐까?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하는 원익인이 저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원익아이피에스 / 맹채연 대리

자유로운 열정, 꿈을 실현하는 원익

‘글로벌 컴퍼니 원익’이란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원익인들 열정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하는 원익인이 자랑스럽습니다.

원익테라세미콘 / 장원준 상무

조화와 협력 속에서 자유로운 원익을 구현한다

베테랑 고참사원과 초보 신입사원, 내부에서 성장한 인재와 외부에서 영입된 인재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일하는 곳이 우리 원익이다.

원익아이피에스 / 김태식 부장

Great

자유는 조건은 ‘안전’이다

자유는 자신이 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 회사와 구성원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자유로운 회사,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원익머트리얼즈 / 안전환경팀 일동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원익은 그러한 사람이 많은 회사다.

(주)원익 / 이승룡 상무

자유는 곧 원익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물고기처럼 바다 속을 자유롭게 노닐고 싶은 마음처럼, 자율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자유=원익’이다.

하늘물빛정원 행복 투어 체험단 일동

프로젝트의 완성은 자유로운 생각과 접근에서부터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접근, 남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 더욱 몰입하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 임재석 대리

자유로운 생각, 열린 원익

WONIK GROUP

NEWS FOCUS

SPRING 2018

원익홀딩스

4월의 첫 워킹데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마케팅 특강

원익아이피에스

2018 SEMICON CHINA 참가
승진자 교육
디스플레이 장비 해외 첫 출하식
2018년 Appreciation Day 행사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WMNA(원익노스아메리카) 출범
원익머트리얼즈 중국 진출 확대

원익큐엔씨

나노원, 원익의 새 가족이 되다
램프 특허소송 승소
원익큐엔씨, 구미 지역 사업장 확장

테라세미콘

사명 변경 및 창립 16주년 기념식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
교육의 열정이 가득한 (주)원익테라세미콘
2018년 한계돌파 Kick-off

원익

효율적 영업활동을 위한 CRM시스템 도입

원익큐브

원익큐브 승진자의 Success Factor Model과 R&R
원익큐브 관리자의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 수립

씨엠에스랩

셀류전씨 '트리악(Tre.AC)' 스킨케어 4종 출시
셀류전씨, 스킨케어 선크림 2종 출시

원익투자파트너스

2018년 1차 소모임 및 호프데이

원익홀딩스

4월의 첫 워킹데이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협력사 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본 선포식은 2017년 12월부터 당사 현 시스템과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수립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재해 달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대표이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안전 결의 선서식(원익홀딩스 1명, 협력사 1명), 안전구호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격려사에서 이재현 대표이사는 “사업 목표를 이행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업장 내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임직원 및 협력사 인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뒤이어 진행된 안전결의선서식에서는 원익홀딩스 대표 1명과 협력사 대표 1명이 나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발전의 적극 참여와 무재해 달성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새로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 [무재해 달성]이라는 또 다른 큰 목표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최근 [안전]이 사업의 매출만큼이나 중요시되고 있는데, 원익홀딩스의 안전의식도 본 행사를 통해서 더욱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주최한 [2018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 원익홀딩스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본 수여식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시군으로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선정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참석하여, 49개 성실납세직장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직접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을 전달하였다. 수여식이 종료된 후, 남경필 도지사는 “세금을 내주는 기업과 개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실납세자 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며 “여러분(기업)도 최고의 애국자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더욱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까지 전하였다. 경기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원익홀딩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케팅 특강

지난 3월 12일, 원익홀딩스 임직원을 대상, 마케팅 관련 명사특강이 진행되었다. 본 특강은 마케팅과 전략 관점에서의 Business Insight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대학교 남윤성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강의는 크게 ‘전략적 혁신’과 ‘환경분석’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업전략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며, 좋은 전략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고, 환경분석에서는 경영환경의 의미와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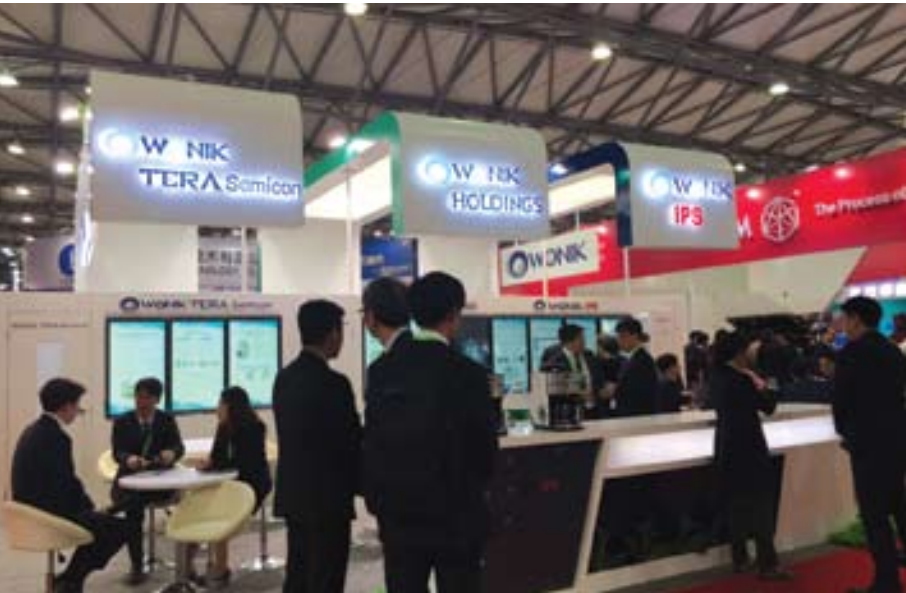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원익홀딩스의 핵심 능력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업무를 넘어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이 전략적 일관성 유지라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홀딩스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강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물론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준비하는 원익홀딩스 임직원이 되기를 바란다.

2018 SEMICON CHINA 참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열리는 ‘2018 세미콘 차이나가’ 중국 상해 신국제센터홀에서 진행되었다. 원익그룹에서는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홀딩스, 테라세미콘이 공동부스를 선보였으며 원익머트리얼즈와 원익큐앤씨도 참가하여 원익그룹의 위상을 드높였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홀딩스, 그리고 테라세미콘은 반도체 업체들이 준비한 N홀에서 각社の 로고를 빛내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회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많은 고객사의 방문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원익아이피에스는 1월 진행된 세미콘 코리아를 시작으로, 3월 세미콘 차이나, 9월 세미콘 타이완, 그리고 10월에는 반도체대전도 참가할 예정이다. 다양한 전시회, 많은 고객사들을 만남으로써 원익아이피에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



승진자 교육

원익아이피에스는 매년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리, 과장, 그리고 부장을 모두 포함하여 총 102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용인에 위치한 KB증권 연수원에서 총 5차수에 걸쳐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교육 대상자들은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사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혹은 자주 보지 못하는 직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더하여 공식 교육일정이 끝난 후에는 조 대향으로 미니탁구대회도 개최되었다. 어려운 고민들은 털어버린 채, 그저 서로 마주 보며 웃고 즐길 수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 이러한 교육들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디스플레이 장비 해외 첫 출하식

지난 3월 22일, 원익아이피에스 둔포 사업장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출하식이 진행되었다.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업체인 고비전옥스(GVO)로 납품되는 이번 장비는 OLED 용 Dry Etcher 장비(GVO 6G, H6G, 4.5G Dry Etcher System)로 중국 고객사로 처음으로 납품하는 장비이다. 그 동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결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 결실이 드디어 장비 수주로 성과로 이뤄졌다. 중국 시장의 포문을 여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DS 사업본부와 경영직원 본부 임직원이 모여 중국 1st 장비 출하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DS 사업본부는 2018년을 해외 진출 원년의 해로 슬로건으로 정하고 해외 시작 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원익아이피에스



2018년 Appreciation Day 행사

원익아이피에스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매년 Appreciation day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맞이한 이 행사는 협력사 대표를 초청하여 당사 사업부별 Business 현황과 전망, 그리고 준법경영 및 품질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우수 협력사 시상과 협력사 의견 청취(VOC)를 통한 협력사와의 Partnership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Appreciation Day 행사는 예년과 달리 초청 협력사(31개사 →46개사)와 우수 협력사 수상업체(5개사 →7개사)를 확대하고 협력사 실무자 공로사 시상(8명)을 신규로 추진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원익아이피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중견기업 중 유일하게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협력사와의 Partnership 제고뿐만 아니라 원익아이피에스 Value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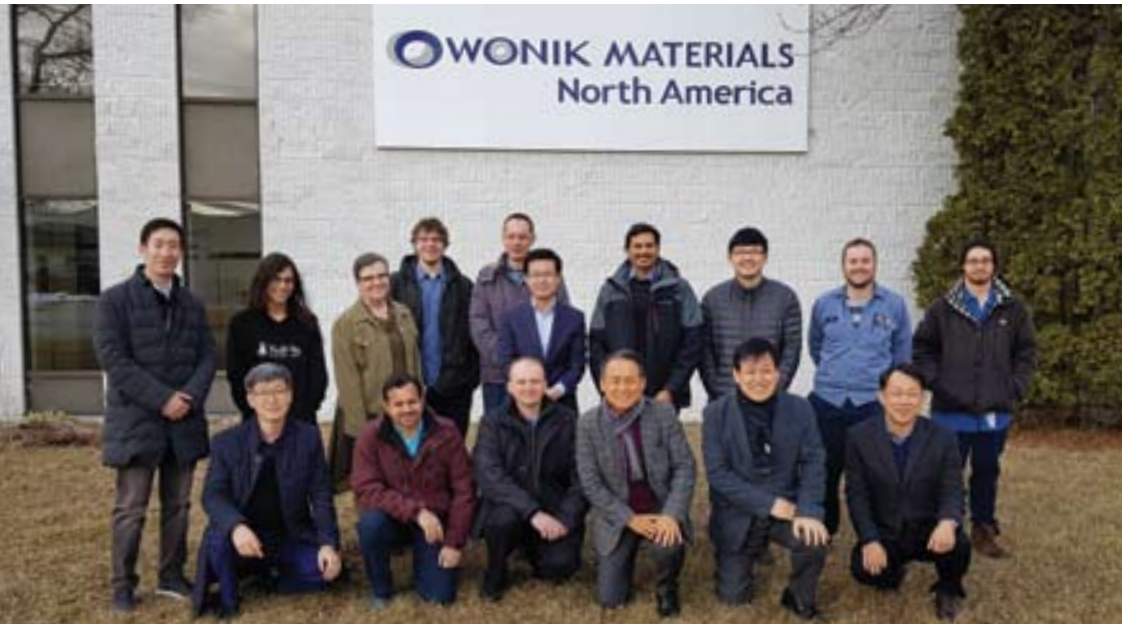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WMNA(원익노스아메리카) 출범

원익머트리얼즈의 미국 자회사가 Wonik Materials North America(“WMNA”)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반도체 및 전자산업 소재 사업 및 연구개발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기술변화와 신소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반도체 증착 원재료인 프리커서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Nova-Kem을 인수한 후, 생산 인프라를 한국으로 이전하고, 기존 법인은 연구개발에 주력하도록 하여 국내외 고객사에 안정적인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원익머트리얼즈는 WMNA 출범과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특수가스에 이어 반도체 증착 원재료인 프리커서 생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차세대 공정, 잠재 시장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의 눈부신 도약이 예상된다.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중국 진출 확대

원익머트리얼즈는 2018년 3월 26일, 중국 신규 진출 관련 중국 섬서성 위난시와 MOU를 체결했다. 이 투자협약을 통해 원익머트리얼즈는 중국 푸청화학공업단지 내 대규모 특수가스 생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익머트리얼즈 중국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중국시장 니즈와 현지 고객사 수요 증가에 대해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지 품질관리와 화학물질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물류 운영 효율화 및 제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해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해 나갈 원익머트리얼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원익큐엔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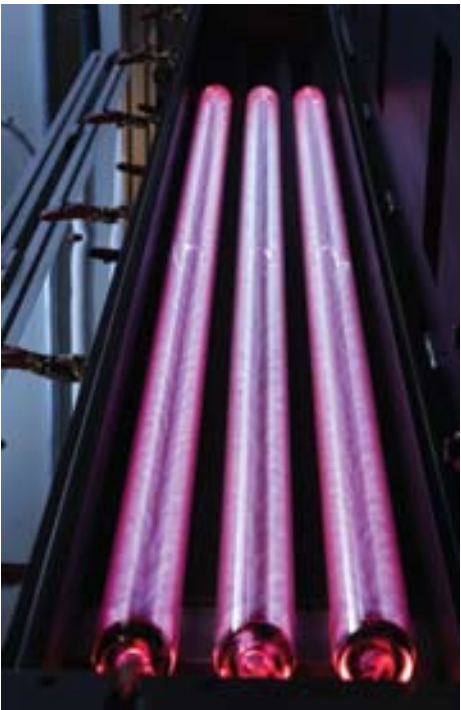
나노원, 원익의 새 가족이 되다

원익큐엔씨는 지난 3월 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정밀세정업체 나노원의 주식 23만7500주(지분율 100%)를 240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나노원은 원익의 계열사로 합류하게 되었다. 나노원은 2002년부터 세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170명의 인원과 매출 185억 규모의 기업이다. 원익큐엔씨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세정과 코팅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나노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원익큐엔씨 세정 사업의 주 거래처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6개의 세정 사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이 중 4개사는 Single Wafer Process(Etch, Photo, Thin film 등) 세정을 담당하고, 2개사는 Diffusion 공정의 세정을 담당하고 있다. 원익큐엔씨의 세정사업부는 Diffusion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나노원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문의 세정 또한 가능하여 향후 세정 사업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나노원은 세정 이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의 내마모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익큐엔씨는 “구미 원익큐엔씨의 Diffusion 사업, 안성 나노원의 Parts 세정 사업, 그리고 원익 서안 법인 세 곳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세정 및 코팅기술 개발과 세정품의 횡전개가 가능하여 사업 전반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원익과 함께 성장해나갈 나노원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본다.

램프 특허소송 승소

원익큐엔씨는 일본 우시오가 제기한 엑시머 진공 자외선 램프 관련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우시오는 세계 산업용 램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최고 기업으로, 이번 특허 소송 대상 제품은 원형의 엑시머 램프다. 원익큐엔씨가 개발한 엑시머 진공 자외선 램프는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빛으로 세정하는 장치이다. 이 램프는 172nm 단파장을 발생시켜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웨이퍼의 오염원인 유기물의 원자 간 결합 고리를 끊어내어 분해시킨다. 우시오는 지난 2016년 이 제품이 구조관련 3건과 석영관 내 성분 조성관련 1건 등 총 4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했다. 우시오는 석영관 제작비용이 상당한 점을 감안, 사각형 모양의 엑시머 램프를 상용화했으며 원익큐엔씨 램프팀도 사각형 모양의 엑시머 램프를 개발해 왔다. 우시오는 원익큐엔씨가 석영관 내부 성분 조성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했지만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원익큐엔씨 램프팀은 “석영관 내부 성분 조성은 사각형 램프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다면 앞으로 차세대 제품인 사각형 램프 시장 참여 자체가 봉쇄될 뻔 했다”면서 “독자 기술로 15년 동안 개발했고, 처음부터 특허회피 설계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산업용 엑시머 램프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대로 크지 않지만 일본 업체가 독점해 왔다. 원익큐엔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기업이 이 시장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하지 않으면 계속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하느라 주춤했던 R&D에 다시 속도를 내고,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등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구미 지역 사업장 확장

원익큐엔씨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주에 ‘16년 말부터 기존 사업장 증축 및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공단에 신설된 약 5,000평(연면적 3,000 평/3층) 규모의 사업장에는 세라믹 구미공장과 강릉공장을 이전 및 통합 운영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기 호황에 따른 CAPA 확보와 가공 및 품질 공정 증축을 통한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라믹 사업장을 이전/통합하게 되었으며, 산화물(구미) 및 비산화물(강릉) 공장 통합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퀴츠 사업 또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CAPA 확보가 필요하여 기존 사업장 증축 및 신규 작업장을 증설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에 917평 규모(1개 층)의 불 작업장을 증축하였으며 올 초에는 1,418평(2층) 규모의 TEL 기계작업장을 완공하였다. 현재는 세라믹 사업장 부지에 3,010평(3층) 규모의 LAM 작업장 신축을 진행 중이며, 올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에 원익큐엔씨 사업장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내부직원들의 혼선을 방지하게 위하여 기존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던 사업장 명칭을 원익 핵심가치의 첫 자를 따 새롭게 부여하였다. 가장 처음 퀴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을 A캠퍼스(처음이라는 의미의 알파벳 첫 글자&핵심가치 자유), 두 번째로 생긴 사업장을 H캠퍼스(지역명 황상동&핵심가치 행복), 최근 신축한 사업장을 C캠퍼스(세라믹&핵심가치 소통)라고 명명하였다. 원익큐엔씨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적으로 호황이 예상된다”며, 높은 성과 달성으로 원익큐엔씨 직원들의 의욕과 애사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익큐엔씨의 앞날을 응원하며, 현재의 상승세 속에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익테라세미콘

사명 변경 및 창립 16주년 기념식

(주)테라세미콘이 (주)원익테라세미콘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지난 3월 26일 (주)테라세미콘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주)원익테라세미콘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번 사명 변경의 취지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올해를 종합 diffusion maker로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Global Top 10 장비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새로 변경된 사명인 (주)원익테라세미콘은 당사가 국내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원익그룹의 계열사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원익 브랜드와 테라세미콘 브랜드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내부적으로는 원익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수 인재 및 신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명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에는 창립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족 소개, 장기근속자 포상, 경영실적 공유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직접 임직원에게 사명변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비전을 공유하였다. 또한 신규사기 전달식을 진행하여 사명변경을 온 임직원이 함께 기념하였다.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

(주)원익테라세미콘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에 회의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회의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주요 회의가 끝난 후에 참석자들이 회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게끔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재 우리 회사 회의문화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되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가를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석자로 하여금 올바른 회의문화 원칙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4월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회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임직원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임직원 참여형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이 빛을 발하여 모두가 즐거운 회의문화가 (주)원익테라세미콘에 정착되길 바라본다.



원익테라세미콘



교육의 열정이 가득한 (주)원익테라세미콘

(주)원익테라세미콘은 연초부터 교육의 열정으로 뜨겁다. 우선 2월에는 2018년에 새롭게 승진한 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승진자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승진자 교육은 승진자들의 동기부여 및 협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 연수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각 직급에 특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승진자 교육에는 매 차수별로 이재경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승진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다음으로 전사에 학습조직 열풍이 불고 있다. 학습조직이란 부서 및 개인별 역량향상을 위해 업무 유관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작년에는 학습조직 활동을 권장사항으로 진행을 했다면 금년에는 학습과 육성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부서가 매월 학습조직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학습 조직 활동 결과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그룹웨어에 게시함으로써 사내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성희롱 예방 등 법정교육을 3월에 서둘러 진행하였다. 최근 “Me, too운동”이 일어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발빠르게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대처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사내 기술(장비)교육 역시 진행하였다. 당사가 첨단 기술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장비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에 해당 교육이 신규입사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원익테라세미콘



2018년 한계돌파 Kick-off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기업의 생존전략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지난 3월 27일 (주)원익테라세미콘은 전사 혁신 활동 확대 실시를 위한 2018년 한계돌파 Kick-off를 진행했다. 본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사 경영 Process 전반에 걸쳐 불필요, 불합리, 비 부가가치 업무 등을 발굴하여 경영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2017에도 한계돌파 과제추진을 통해 효율 경영에 이바지하였기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높은 매출액 대비 절감율을 목표로 Kick-off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당사 CEO를 비롯한 리더급 임직원 16명이 참석하여 과제 선정 및 과제 추진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토의 내용은 회사 차원에서 혁신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혁신형 인재를 발굴해야 하고, 단순히 과제의 양보다 질적 성장이 우선이라는 점 등이었다. 2018년에도 한계돌파 과제가 모두 완수되어서 효율적 경영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효율적 영업활동을 위한 CRM시스템 도입

지난 2월 21일 판교 사옥 2층 AV룸에서 (주)원익의 CRM시스템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부터 CRM TFT에 의해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실로 (주)원익은 CRM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기존에 엑셀을 통해 개인, 팀별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통합 전산화하여 모든 팀이 실시간으로 공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개인, 팀별 영업기회와 활동을 실시간으로 체크함으로써 개인이 놓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목표대비 영업 및 매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함으로써 각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물류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 수기업무의 전산화,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게 되었다.

(주)원익은 소통광장 등 경영회의에 CRM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CRM 우수 사용자를 매월 포상하는 등 CRM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주)원익의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 CRM시스템은 (주)원익의 영업 활동을 향상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원익이 성장할수록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익큐브 승진자의 Success Factor Model과 R&R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원익큐브 대리, 과장 승진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승진 이후 Role & Responsibility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주제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교육생들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구체적인 output을 도출해냈다.

교육생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었고, 조 별 output을 요약해보면 과장의 R&R(Role & Responsibility)은 가교적 역할, 멘토, 코디네이터, 업무확장자, 혁신가로 도출되었으며, 대리의 R&R은 정보수집자, 성과창출자, 실무자, 철저한 실행자, 역발상적 사고자로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과장직급은 팀원의 말을 경청하여 팀장에게 전달하고, 팀장의 지시를 팀원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역할이 중요했고, 대리직급은 지식을 수집하고, 본인의 업무지식도 쌓으면서 상사의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도출되었다.

교육 대상자인 승진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직접 의견을 내고 토론하면서 승진자 직급으로서 바람직한 행동규범과 책임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하여 R&R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원익큐브

원익큐브 관리자의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 수립

지난 2월, 경기도 양평에서는 원익큐브 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수립, Influential Leadership, Strategic Communication Skill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성과기반의 리더십을 조직에 정착 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의 핵심인 현재상태의 성찰과 목표수립의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프로세스 단계별 필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영향력 있는 리더(Influential Leadership)에서는 자기인식(Self Awareness), 자기정렬(Self Alignment), Centering 및 Modeling, 인정(Acknowledgement)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주제 성과관리 Workshop에서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자율책임 경영 방식으로 경영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율책임경영을 해야하는가?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문 강사의 교육 진행으로 관리자들은 리더십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다시 한번 성과관리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추가로 이효상 인사팀장의 DiSC communication 교육진행으로 관리자들은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상하관계에 적용하여 소통과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의 첫 발판이 되기를 바랐다.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트리악(Tre.AC)’ 스킨케어 4종 출시

트리악(Tre.AC) 스킨케어 라인은 17년간 병·의원에서 얻은 노하우로 탄생한 셀퓨전씨의 지성피부 케어 라인으로 피부의 5대 밸런스(pH/각질/모공/피지/수분)를 바로잡아 피부 환경을 개선하고 피부 고민 재발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각질 케어 약산성 ‘pH 컨디션 토너’(논코메도제닉/각질개선테스트 완료), 지성피부용 젤 타입 보습 연고 ‘모이스처 젤 오인트’, 여드름 집중 케어 앰플 ‘파이널 레스큐 시럽 앰플’(여드름 피부 적합성 테스트 완료), 노폐물은 물론 미세먼지 클렌징이 가능한 ‘포어 딜리트 버블 팩’(미세먼지 흡착 테스트 임상 완료),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퓨전씨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환절기 미세먼지 등으로 피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며, 피부 트러블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올바른 피부 케어를 돕기 위해 지성피부 전용 라인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출시 배경을 밝혔다.



‘트리악(Tre.AC)’ 스킨케어 4종

셀퓨전씨, 스킨케어 선크림 2종 출시

정통 더마톨로지 브랜드 셀퓨전씨가 ‘레이저 썬스크린 100’에 이어 자외선 차단과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스킨케어 선크림 2종을 새로 선보였다.

‘큐어 썬스크린 100(SPF50+/PA+++)’은 시원하고 촉촉한 사용감의 쿨링 선크림으로 건성, 민감성 피부가 바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화상 연고에도 사용되는 아줄렌이 함유되어 즉각적인 진정 케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수분 에센스가 60% 함유되어 수분 보유 효과는 물론,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아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트리악 클리어 썬스크린 100(SPF48/PA+++)’은 산뜻한 마무리 감의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지성, 트러블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러블 제거부터 커버까지 모든 트러블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 트러블 피부도 모공 막힘 걱정 없이 부드럽게 바를 수 있으며, 윈터그린 성분이 염증 재발을 막아준다. 셀퓨전씨의 신제품 ‘큐어 썬스크린 100’과 ‘클리어 썬스크린 100’은 올리브영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성, 민감 피부용 “큐어 썬스크린 100”
지성, 트러블 피부용 “클리어 썬스크린 100”

원익투자파트너스



2018년 1차 소모임 및 호프데이

지난 3월 22일에 2018년 1차 소모임 및 호프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에서는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영화 '사라진 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사라진 밤은 아내를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계획한 남편, 몇 시간 후 국과수 시체보관실에서 부검을 앞둔 아내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시체의 행방을 둘러싼 단서들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사건의 용의자이자 아내가 다시 살아났다 믿는 남편, 사라진 아내, 사라진 시체를 쫓는 형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영화 내 벌어지는 사건들이 긴박감 넘치게 진행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범인과 시체의 행방을 추리하며 마지막 반전이 충격적이었던 스릴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임직원들은 흥미진진했던 스토리와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끝으로 2018년 1차 소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흥미로운 기업문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1 스킨케어 선크림

피부를 바꾸는 셀퓨전씨 썬스크린 100



정정

회사에 관한 좋고 새로운 많은 정보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
사보의 내용이 변화한 만큼 우리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보며 꾸준히 내실 있는 내용을 사보에 게재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공유 & communication 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겨울호 사내기자단 코멘트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최송한 마음에 윤용인님께 카페라테 기프트콘을 선물하였습니다.

참여

참여자 전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
원익홀딩스: 김형철
원익테라세미콘: 김승한, 김한별
씨엠에스랩: 김소연 , 유수양, 이민경, 이세연, 김시유
원익큐브: 오재성, 오영근, 이최원, 강지민
원익홀딩스: 이승현, 강한목

당첨자

리더를 찾아라
원익엘앤디: 추천인-김선미 -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선정인-박민철 - 백화점상품권 10만원

도시를 찾습니다 - 스타벅스 카페라떼 2매
(주)원익-서지혜

이번호에는 대만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조금 멀리 유럽의 스페인은 어떠실지 추천 살짝 해봅니다.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하죠~
매콤한 음식, 풍부한 해산물, 따뜻한 기후, 열정..!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밖에 못가봤지만 남부 지방(세비아, 그라나다)도 유명하고 음식당도 하며 구석구석 많이 유명해 졌습니다.
몇년전에 스페인에 일주일정도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비행기도 놓치고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못갔으면 나중에 엄청 후회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의 멋진 작품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들, 그리고 빠질수 없는 샹그리아...♡
사보에서 한번 다뤄주셔서 원익사람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 스타벅스 카페라떼 1매
씨엠에스랩-박영우

이번호 원익사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입사했을 때 막 사보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원익그룹에 대한 이해도 적었고 사진을 보아도 아는 사람도 없고, 계열사도 낯설고 했었어요.
이제 4개월이 된 지금 다시 받아든 사보는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도, 우리 계열사의 소식도 모두모두 반갑고 재미있네요.
사보를 만드느라 수고하셨을 분들도 생각해 보며...숨은 캐릭터 사진 보내드립니다.

사보와 한몸이 되라 - 케익 교환권(그웨잇)
원익홀딩스-김혜문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님이야 말로 리더지!’
확신이 들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추천인 에게는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콩트로 각색하여 드립니다.

덕후라면 자랑하라.

매니아, 콜렉터, 애호가, 취미, 특기 등
함께 공유해요. (문학, 예술 포함)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원익덕후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밥 한번 먹어요.

임직원 간의 소통을 맛집을 통해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 외에는 만날 수 없지만,
사보를 통해 인맥도 쌓고,
몰랐던 분·아는 분과 더 가까워지는 식사 기회.
원익인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특별한 만남을 신청해 주세요.

마음껏 드셔도 공짜

보고픈 사람 신청은 물론,
나홀로 신청 대환영합니다.
(3-4명 구성)
우리 모두는 원익인

p r e s e n t
editor's letter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소감이나 기억에 남는 글,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여러분도 원익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02-6674-7845 / 010-9011-5792

보내실 때 - 부서/ 이름/ 코너제목/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2018. 5. 5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도시를 찾습니다.

소개되었으면 하는 나라, 도시.
혹은, 내가 가본 세계를 추천해 주세요.
꼭 찍어만 주시면 편집실에서 근사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트콘 2매

WONIK WORLD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물이 찾아갑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트콘

54호에서 위 3개의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사보와 한몸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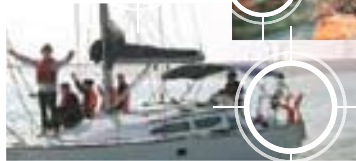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소감을 보내주시면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오리다.
혼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멍멍이도
함께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그웨잇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6p



97p



77p

